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0호 [루게 제24908호] 주제 104 (2015)년 5월 10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보람찬 창조와 위훈을 수놓아가자

화학비료를 제때에 생산보장할 열의안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농민비료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농촌에 화학비료를 보내주기 위하여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촌에 대한 국가적지원에서 중요하한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비료를 제때에 보장하는 것인이다.》** 당위원회는 지도밑에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시비년도 화학비료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중으로 벌리고있다. 책임일군을 비롯한 당위원회일군들은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화산선전, 화산선동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농업근로자들과 나라의 쌀독을 함께 책임진 립장에서 10월의 비료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 분발해나서도록 그들의 심정에 불을 지피고있다. 일터마다에서 기동예술선동대활동과 방송선전차활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구호와 표어, 속보들이 나붙고 붉은기가 휘날리는 생산현장들은 화학비료생산투쟁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당위원회는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우리의 원료와 연료, 최신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주제품비료를 최대한 늘리기 위한 작전을 면밀하게 세우고 일관을 통이 크게 벌리고있다. 공업, 립석학부문을 비롯한 련합

기업소의 일군들은 화학공업성을 비롯하여 전력공업, 석탄공업, 철도운수부문 일군들과의 긴밀한 련계에 비료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 등을 알철러가며 보장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일군들은 기관차운수조원들과 함께 탄광으로 나가 석탄생산과 수송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함께 풀어나가면서 앞채를 메고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일군들은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킬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련관단위 과학자, 기술자들과 협조지혜를 합쳐가며 물전해공정과 가스화공정운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련방을 집중하여 생산정상화의 동력을 높이고 있다.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련관단위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현장에서 서로 돌고이갈면서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생산설비들을 보다 현대적으로 개조하고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

국 받아들여 원가를 낮추면서 생산성을 부쩍 높이고있다. 기술부기사장 리호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가스화공정의 주요설비, 장치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거나 새로 보충하여 그 어떤 조건에서도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련관단위 과학자, 기술자들과 협동작전을 벌려 2합성직장과 가스청정직장, 발생로직장, 2결소직장, 노소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들의 생산공정에서 개조할것은 개조하고 보충할것은 보충하면서 수십건의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비료생산성을 정상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직장별, 작업반별사회주의 중산경쟁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시비년도 비료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있고있다. 물전해공정과 절단직장, 원료직장, 발생로직장, 가스청정직장, 노소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사회주의농촌에 더 많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

◇ 백두산기슭청년발전조선설장이 창조와 위훈의 불도끼로 세차게 쪼갰다. 어디 가나 경제하는 원수님을 모시었던 감각과 걱정에 넘친 목소리들을 들을수 있고 지칠줄 모르는 투쟁 열기를 엿볼수 있다. **《지난 4월 우리들을 찾아오신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장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우리 땅을 지지하는 청년들의 불타는 충정의 마음을 볼수 있었다고, 자신께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심정이라고, 청년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대자연과의 싸움을 벌리고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제하는 원수님의 이 크나큰 믿음에 완공의 그날을 앞당기는것으로써 보답하겠다.》** 백두산이 우리들을 지켜주고있다. 백두산 칼바람에 뜻을 달고 10월의 대추진장으로 실풍량이 나아가는 청년강국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백두산의 청년 강국을 마시며 백두의 넘과 기상으로 투쟁하는 돌격대원들의 열정과 투지가 확실히 다르다.》** ◇ 청년강국, 이것은 청년중시사상이 철저히 구현되고있는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면모이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하며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청년들을 중시하는 혁명은 언제나 생기와 활력에 넘쳐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 세상은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청년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처럼 청년문제가 가장 완벽하게 해결된 나라, 청년들이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꽃으로 떠날때까지 우리들의 주인공으로 여겨져 자라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극도의 인간중요사상과 페르페티이 범람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청년들이 역사의 변두리에 밀려나 사회의 우둔한자로 버림받고있다. 앞날에 대한 희망도 꿈도 없는 수많은 청년들이 타락과

멸망의 구렁텅이로, 자살의 길로 끝날것이고 있는것이 자본주의사회의 참혹한 현실이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물결을 가리라 당의 부름에!》, 《연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이 구호들은 조선혁명들의 승고한 정신세계가 그대로 비껴났다. 당이 부르는 곳에 인생의 좌표를 정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삶의 자욱을 새겨가는 전위투사들, 혁명성이 높고 단결력이 강하며 진취적이요 헌신적이며 용감무쌍한 미래의 개척자들, 집단과 동지를 위하여 피와 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참된 인간들이 바로 우리 청년들이다. 이런 훌륭한 청년대군, 믿음직한 계승자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혁명이 필승불패이며 백두산대군의 미래가 끝없이 창창한것이다.》** ◇ 청년들은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총진군대의 최후대이다. 청년들의 발걸음속도이자 강성한 매일을 앞당기는 우리 조국의 전진속도이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자라나고 선군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억세게 단련된 청년들이 앞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때 우리에게는 땀지 못할 난관, 절망 못할 요새가 없을수 없다. 피끓는 청춘시절에는 창공에 치솟는 포부과 리상을 지니고 세상이 좁다하게 일만을 벌리며 단숨에의 기상으로 산악도 떠돌고 날바다도 메우면서 시대를 뒤흔드는 맛이 있어야 한다. ... 조국의 큰 짐을 다 맡자 최첨단때도 다 뒤져 애국에 불타는 청춘들이 당을 따라 앞으로 노래 《당을 따라 청춘들이 앞으로》를 힘차게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의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10월의 대추진장을 향하여

10여개 중요기술개건대상에 화력을 집중

흑색광업관리국아래 각지 광산, 기업소들에서

흑색광업관리국아래 각지 광산, 기업소들에서 중요기술개건대상의 기술개건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을 모조리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장진 일흔들을 혁명적대적경사로 빛내어야 하겠다.》** 흑색광업관리국에서는 경제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후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뜻있는 울헤 생산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건목표를 콰적목표로 세웠다. 이 하나하나의 목표들은 나라의 철강재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크게 주목되고있다. **《흑색광업의 막도치리능력을 더욱 높일수 있는 조구장건설목표가 절실한 과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을 모조리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장진 일흔들을 혁명적대적경사로 빛내어야 하겠다. 이 것은 기초공급목표를 앞세워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을 모조리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장진 일흔들을 혁명적대적경사로 빛내어야 하겠다.》** 흑색광업관리국에서는 경제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후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뜻있는 울헤 생산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건목표를 콰적목표로 세웠다. 이 하나하나의 목표들은 나라의 철강재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크게 주목되고있다. **《흑색광업의 막도치리능력을 더욱 높일수 있는 조구장건설목표가 절실한 과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을 모조리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장진 일흔들을 혁명적대적경사로 빛내어야 하겠다. 이 것은 기초공급목표를 앞세워

작업에 많이 쓰이는 대형다이아를 더 많이, 더 질좋은 생산하기 위한 생산공정의 기술개건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 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내세운 목표는 수입산 대형다이아보다 수명이 길고 경제적이거나 보강된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하루빨리 꾸려놓는것이다. 그 실현을 위해 공장에서는 기술자들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고자 하는 결심을 굳히기로 하고있다. 이 와 함께 막도치리능력을 높일수 있는 기술적문제들을 하루빨리 풀어 풀이 높은 재방장을 타고있기 위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중요기술개건공사가 끝나면 굴지의 철광산생산자들에게는 대형스피드로 끌어올린 박도를 실고부러진 공정이 없어지고 심부굴광에서 박도를 실는 대형화물자동차가 스키프레차를 타고 로컬까지 거침없이 올라와 연속처리하는 호프환 광장이 펼쳐지게 된다.》** 그로부터 얻게 되는 경제적실리는 크며 철광산생산상태는 한층 강화될 것이다. 하성다이아광장에서는 운광

고산과수농장능력확장공사 적극 추진

한달동안에 180동의 살림집개건공사 성과적으로 진행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일수록 필승의 신심과 비상한 각오를 더 굳게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야 합니다.》** 경제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철강아래 사파리에서 파일향기 넘치고 파일파도 물결치게 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호를 높이 받들고 618건설절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고산과수농장능력확장공사에서 총공격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중환된 자료에 의하면 한달 동안에 180동의 살림집개건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기간에 살림집개건공사와 수만장의 기와생산 및 지붕공사, 수실리구간의 배수로지기와 10여km의 울타리공사 등 방대한 과제를 수행하는 지량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고산과수농장은 사회주의농민국의 체모에 맞는 표준농장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훌륭히 갖추게 되었다.》** ◇ 성과는 경제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뜻을 하루빨리 꽃피울 열매를 안고 전체 돌격대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높이 발휘한 결과에 이룩된 자랑찬 열매이다. **《지난해 7월 몸소 고산과수농장을 찾으신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장을 사회주의 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표준농장으로 진전시킬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의 공사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제하는 원수님의 현저한 말씀에 높이 받들고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당면하여 살림집개건공사를 다그쳐 끝내는데 모를 바고 공사조직을 면밀하게 짜고 들었다. 자재가 부족한 속에서 책임일군들이 현장에 내려가 대중의 심정마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만장자적으로 새기고 충이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위훈자가 되도록 최선의 시정적사업을 활발히 벌리고 있다. 이와 함께 세멘트공장에 나가 로동자들을 불러일으키는 한련 열차와 화물자동차를 타고 밤낮을 이어달리며 자재보장을 앞세우기 위해 뛰었다. **《이 에 고무된 각 련합기업소들과**

돌격대원들이 추천한 기세로 일제히 전투에 전진하여 공사속도를 부쩍 높여나갔다. **《살림집의부와 내부미장공사 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었다.》** 함경북도, 남포시리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많은 건설대상을 남기지 않고 완공할것을 일념을 안고 어려운 과제인 골재보장에 한사람같이 열매를 내었다. 그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호를 심장에 새기고 골재장을 타고있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치열한 전투를 벌렸다. 그리하여 공사를 앞두고 골재를 비롯한 자재들을 확보해놓고 미장공사에 진입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평안남도리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자기들이 건설한 창조물들에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도 모시었던 크나큰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살림집내부와 외부, 천정미장에 깨끗한 광임을 바치였다. 일군들은 기능공대렬을 튼튼히 꾸려놓는데 맞게 그들의 책임일군과 역할들을 더욱 높여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살림집내부와 외부미장, 울타리공사와 함께 기와의 우기, 외장 세마리기, 배수로지기 등 여러 공사대상들도 힘있게 추진되었다. 이미 많은 대상공사를 끝낸 다장도, 함경북도리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화약에 불이 달린 것처럼 질풍같이 내달려 기와의 우기를 높이 변적 내게 다그쳤다. 그들은 선 선리성, 선 선리학의 원칙을 철저히 틀어쥐고 기와의 우기와 외장세마리기에 깨끗한 광임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뜻깊은 10월의 대추진장을 빛내일 결의밑에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열한 전투를 벌리는 618건설절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고산과수농장능력확장공사는 더욱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 **《본사기자 정성일**

자연에너지를 개발리용 평안북도에서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있는 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긴장한 전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전망계획을 바로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힘을 쏟으며 수력자원을 위주로 하면서 풍력, 지열, 태양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를 리용하여 전력생산을 해야 합니다.》** **《평안북도에서 수력자원에 의한 전력생산을 내밀면서 풍력, 지열, 태양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를 적극 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도급기관, 공장, 기업소들과 시, 군들에서 자연에너지를 적극 리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치고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자연에너지를 리용하여 전력을 생산할수 있는 설비제작기지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적**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을 모조리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장진 일흔들을 혁명적대적경사로 빛내어야 하겠다.》** 흑색광업관리국에서는 경제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후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뜻있는 울헤 생산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건목표를 콰적목표로 세웠다. 이 하나하나의 목표들은 나라의 철강재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크게 주목되고있다. **《흑색광업의 막도치리능력을 더욱 높일수 있는 조구장건설목표가 절실한 과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을 모조리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장진 일흔들을 혁명적대적경사로 빛내어야 하겠다. 이 것은 기초공급목표를 앞세워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화차를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에서

나갈 리원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 보고 풀이하는 한편 자재보장대책을 면밀히 세워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들마다에서 요구하는 화차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이 와 함께 기술자, 로동자들과의 사업을 짜고치며 울헤 련합기업소앞에 맡겨진 화차생산계획수행을 위해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더욱 다그쳐나가고있다.》** **《화차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단위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기세 좋게 내달리고있다.》** **《주강공정에서는 설비편리를 더욱 짜고치며 화차생산에 필요한 주강물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높은 책임감을 안고 힘찬 전투를 벌려 매일 일생산계획을 1.2 배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단조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직장앞에 맡겨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일수록 필승의 신심과 비상한 각오를 더 굳게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야 합니다.》** 경제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철강아래 사파리에서 파일향기 넘치고 파일파도 물결치게 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호를 높이 받들고 618건설절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고산과수농장능력확장공사에서 총공격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중환된 자료에 의하면 한달 동안에 180동의 살림집개건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기간에 살림집개건공사와 수만장의 기와생산 및 지붕공사, 수실리구간의 배수로지기와 10여km의 울타리공사 등 방대한 과제를 수행하는 지량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고산과수농장은 사회주의농민국의 체모에 맞는 표준농장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훌륭히 갖추게 되었다.》** ◇ 성과는 경제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뜻을 하루빨리 꽃피울 열매를 안고 전체 돌격대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높이 발휘한 결과에 이룩된 자랑찬 열매이다. **《지난해 7월 몸소 고산과수농장을 찾으신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장을 사회주의 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표준농장으로 진전시킬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의 공사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제하는 원수님의 현저한 말씀에 높이 받들고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당면하여 살림집개건공사를 다그쳐 끝내는데 모를 바고 공사조직을 면밀하게 짜고 들었다. 자재가 부족한 속에서 책임일군들이 현장에 내려가 대중의 심정마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만장자적으로 새기고 충이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위훈자가 되도록 최선의 시정적사업을 활발히 벌리고 있다. 이와 함께 세멘트공장에 나가 로동자들을 불러일으키는 한련 열차와 화물자동차를 타고 밤낮을 이어달리며 자재보장을 앞세우기 위해 뛰었다. **《이 에 고무된 각 련합기업소들과**



후대사랑의 송가여 더 높이 울려퍼지라

이 땅에서 후대사랑의 송가 높이 울리고있다. 북반은 우리 아이들이 터치는 고마움의 노래소리가 누리를 진감하며 장산에 울려퍼진다. 세상을 둘러보면 따뜻한 행복의 요람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은 사회의 희생물로 버림받으며 꽃망울도 터쳐보지 못한채 스물어가는 아이들과 얼마나 판이한 대조를 이루는것인가. 무릇 아이들의 표정에는 당대의 사회상이 비치고 정치의 참모습이 비친다. 아이들은 나라의 왕로 떠날것고 이 세상 제일 좋은것을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안겨주는 내 조국의 자랑스러운 현실을 걸갈할수록 이 땅에 풀려오는 검은구름을 밀어내며 따뜻한 해방만을 주시고 어린이들을 자라온 한복에 안아 보살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서에 울리는 우리 인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아이들이 잘살게 하는것이 우리 당의 투쟁목표입니다. 구호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생각하면 어려운 일도 일도 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 한없이 고결한 인성관을 지닌 위인만이 민족과 대까지 책임지는 정치를 할수 있다. 세상에 이롭나 위인치고 후대들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전하고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처럼 온 나라 아이들을 모두를 넓고 따사로운 사랑의 한복에 안아 보살피고주시고 미래의 주인공들로 훌륭히 키우시기 위해 천만골도 아끼지 않으시는 자애로운분은 이 세상에 없다. 지금도 승연히 안겨준다. 구호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제일 좋고, 이 구호를 보가만 하여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이 가슴뜨겁게 어려온다고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후대관을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지이시여 가시는 곳마다, 들리시는 곳마다에서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후대사랑의 감동깊은 화폭을 펼치고계신다. 조선인민 최고사령관의 줄임말 지니시여 하셔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가보셔야 할 곳도 많은 설명절기간이었지만 만경대혁명학원

의 원아들을 찾으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아버지장군님을 잃고 처음으로 갖는 명절인데 내가 원아들의 부모가 되어 명절을 함께 쇠야지 누가 쇠겠는가고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학원의 일군들과 원아들이 아니 큰 나라가 격정의 눈물을 흘리었다. 바로 그날부터였다.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와 더불어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가슴뜨거운 서사시가 시작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축복속에 성대히 진행된 조선소년단창립 66주년 경축행사의 감동깊은 순간들이 뜨겁게 추억속에 어려웠다. 창립절을 맞는 우리 소년단원들을 축하하시며 여기에 참가한 소년단원들의 내걸한 모습과 정다운 얼굴들을 보니 동무들을 평양으로 뜨겁게 배워준 소년단원동무들과 선생님들, 동무들의 부모형제들을 다 만나 보는것만 같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정을 담아 말씀하실 때 이 나라의 평범한 아들딸들이 훌륭한 눈물은 얼마나 뜨겁고 찬란하였던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바치는 시간은 아깝지 않았고 그이께서는 아이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나란히 앉으시여 음악회도 관람하시었고 조국의 미래인 소년단원들의 앞날을 걱정하시며 최후한 축포의 꽃바다를 활하게 펼치주시었다. 무려 20년이 지나 자라를 옮겨가시며 2만여명의 학생들을 위하여 기념사진도 찍으시었다. 그렇듯 위대한 사랑과 은정을 천골로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시여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에도 우리 아이들과 똑같이 소년단원 타이틀을 메시고 참석하시었다. 우리가 혁명을 하는것도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볼 때마다 혁명을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하시며 뜨거운 후대사랑으로 심장을 뚫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부러움없이 자란다. 전국의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원아들, 교향선의 등산길을 걸으며 영웅 생활을 하던 학생들이 받아안은 품같은 사랑의 이야기들 오늘도 사랑들은 잊지 못하고있다. 학생소년들이 울리는 미숙한 편지들을 빠짐없이 보아주시고 그이께서는 사랑의

편지들도 보내주시었다.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신 그날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린이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으로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어떻게 지키는가, 사회주의를 어떻게 고수하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후대사랑의 위대한 화폭을 펼치시었다. 절세위인의 그렇듯 뜨거운 사랑속에 삼마음아이들의 즐거운 야영생활이 펼쳐졌고 우리를 어찌보려는 원수님의 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속에서 문수물놀이장, 유류야동원 등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새로 일떠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일 기쁜 순간은 아이들이 무엇인가 해냈을 때이고 그이께서 제일 행복한 순간은 아이들이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퍼질 때이다. 그래서 세상에 돌도 없는 아이들의 호명, 아이들의 궁전을 마련해주시고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나라 아이들속에 계시며 추수경기와 축하공연도 함께 보시고 만경대학생소년단군을 찾으신것은 전적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라는 노래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후대들을 위하여 려가자 미래로! 라는 글말을 새우자고 그처럼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시던 이 땅의 아이들모두를 구급 없이 행복하게 키우시려는 불같은 열망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아들에게 먹이 먹고 마유먹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몸소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시었고 원아들에게 1년 365일 하루도 변질되지 않는 보양식을 위하여 수산사업소를 인민군대에 조직할때 대한 조선인민군대교사평판 명령도 하달하시었다. 자식을 끝없이 아끼고 위하여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색동옷과 코트모스머리핀셋 그리고 식료품까지 한가득 안겨주시었고 로리사들까지 보내시여 명절음식을 차려주도록 하시었다. 부모없는 아이들 무리 혁명의 계승자, 미래의 역군들이라 고하시며 전국의 모든 유아원, 애육원들을 혁명가유자녀들을 키우는 혁명학원수준으로 꾸러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에 떠날때마다 풍치수려한 대동강가에

아이들의 행복의 요람, 세상에 다시 없는 아이들의 궁전이 솟아올랐다. 이 세상 천만부모의 정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위대한 사랑에 떠날때마다 이제 오래지 않아 원산유아원, 애육원이 원아들을 위한 또 하나의 보금자리가 될것이다. 원수님과 아이들, 진정 불보다 뜨겁게 맺어진 혈연의 정이여서 온 나라 인민들 누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 운명도 미래도 맡기고 장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힘차게 일해나가고있는것이다. 세상에 부럼없이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힘을 얻으시며 우리의 원수님께서는 오늘도 아이들이 즐거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우리 나라의 그 어디 서나 더 높이 울리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후대들을 위한 사랑의 천만리길을 끝없이 이어가신다. 평양시교향선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신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깊은 뜻이 오늘도 우리의 심장에 미처온다. 나는 어린이들이 즐거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와 장군님을 전적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라는 노래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후대들을 위하여 려가자 미래로! 라는 글말을 새우자고 그처럼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시던 이 땅의 아이들모두를 구급 없이 행복하게 키우시려는 불같은 열망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아들에게 먹이 먹고 마유먹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몸소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시었고 원아들에게 1년 365일 하루도 변질되지 않는 보양식을 위하여 수산사업소를 인민군대에 조직할때 대한 조선인민군대교사평판 명령도 하달하시었다. 자식을 끝없이 아끼고 위하여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색동옷과 코트모스머리핀셋 그리고 식료품까지 한가득 안겨주시었고 로리사들까지 보내시여 명절음식을 차려주도록 하시었다. 부모없는 아이들 무리 혁명의 계승자, 미래의 역군들이라 고하시며 전국의 모든 유아원, 애육원들을 혁명가유자녀들을 키우는 혁명학원수준으로 꾸러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에 떠날때마다 풍치수려한 대동강가에

혁명일화 거듭 찾아보신 지능교육도서

지난 1월 2일부 <로동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를 하신 그걸로 평양유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신 소식을 보도하면서 원아들에게 친어머니사랑을 부어주시는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모신 사진문헌들도 게재하였다. 그중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림책을 펼쳐드신 사진문헌도 있다. 그것은 애육원일군이 자기네 지능놀이실의 책꽂이에 꽂혀있던 책들중 한권을 정중히 올린것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보아주시는 화폭이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다. 일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유아원을 먼저 돌아 보실 때부터 시작되었다. 마칠 점심시간이니 원아들이 밥먹는것부터 보자고 하시며 식당에도 가시고 보육원과 잠방, 물놀이장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능놀이실에 이르셨을 때였다. 그곳에서는 유아원 원아들이 수자맞추기와 조각그림 맞추기를 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수자맞추기와 조각그림맞추기를 하는 어린이들이 모두 맞추기놀이를 잘한다고 칭찬하시었다. 아이들이 모두 훌륭하다고 못내 기뻐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능놀이실의 책꽂이앞으로 다가서시여 <우리 말을 배워요>를 손수 꺼내드셨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여기에 어린이들의 지능을 계발시키는데 필요한 책들도 있다고 하시면서 유아원일군에게 어린이들이 몇살때쯤 글을 읽는가고 물으시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동행한 일군을 곁으로 부르시여 어린이지능교육도서를 많이 만들어 평양유아원과 애육원에는 물론 전국의 모든 유아원과 애육원들에 보내달라 대한 말씀을 하시었다. 우리 나라에서 어린이지능교육도서를 잘 만드는것과 함께 다른 나라에서 만든 좋은 어린이지능교육도서들을 들여다 출판할때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린이지능교육도서의 실례까지 보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것을 다 우리 어린이들의 년령심리특성에 맞게 잘 번역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는 그이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일군들은 수첩에 자자구구 적어넣었다. 한편서도 그들은 그이께서 어린이들의 지능교육용 그림책을 찾아보시고 크나큰 심혈을 쏟으시는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였었다. 그때로부터 시간이 흘러 평양유아원을 다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애육원의 지능놀이실에 들어서시였을 때 그이께서는 거기에 지능교육용그림책들이 있는가에 대하여 또다시 알아보시었다. 애육원일군이 어린이지능교육용그림책들이 많다고 말씀드리며 한 책꽂이에서 그림책을 뽑아 그이께 드려드렸다. 그러자 원수님께서서는 반갑게 받아드리고 주의깊게 보시었다. 그러신 후 이번에는 자신께서 손수 다른 책꽂이에서 그림책을 고르시여 한장한장 번져보시는것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기쁘신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지능놀이실에 도서들이 많습니까. 지능놀이실에 있는 <우리 말을 배워요>, <생각해보자요> 라는

도서들은 어린이들의 지능을 계발시키는데 좋은 도서들입니다.> 그림책을 손에 드신채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그런 책들을 더 많이 만들어 전국의 유아원과 애육원들에 보내줄때 대하여 다시금 간곡히 당부하시는 우리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많은 나라들에서 고아는 불행과 설움의 대명사이다. 그들이 잠시나마 배불리 먹고 뜻이 지낼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행운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 우리 원아들의 식탁에 매일같이 오르는것은 갖가지 영양식료품들과 신선한 물고기, 알알이 무르익은 과일들이고 너무나 곱게 차려입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의 선물옷들이다. 잠을 자도 엄마따따랑 포근한 침대에서 자고 뛰어놀아도 갖가지 놀이감들과 특색있는 유희기재들이 짝 들어있는 놀이장과 우리 원수님께서 친히 정해주시신 알맞춤한 온도의 맑은 물이 잘짜이는 물놀이장에서 온갖 즐거움을 다 누린다. 하지만 원아들을 사랑의 한복에 안아 키우시는 우리 원수님을 짜고들어 모든 정병 잘 먹이고 곱게 입고 즐겁게 뛰어놀게 하는 것만만은것이 아니다. 일군들의 뇌리에 문득 머근머근이 있었다. 몇몇몇 창건기에 입산한 근로자들과의 집을 찾으실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마련해가지고 가시었던 뜻깊은 세집들이추하기념품중의 하나인 세계혁명동화집이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림책은 세계이고 역사이다. 더우기 최첨단문명에도 돌진하는 오늘날의 시대에 지능교육용그림책이야말로 두뇌와 지인의 어린이들에게 있어 때때로 창조적인 무비의 인체의 색을 뒤워 주고 가꾸주는 훌륭한 스승이며 친근한 길동무인것이다. 일군들이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데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아 내내 메아리쳤다. <당시 후대사랑, 미래사명정착의 요구대로 보육교양사업을 짜고들어 당의 사랑과 배려가 원아들에게 그대로 가닿도록 하여 그들속에서 훌륭한 과학자, 영웅, 군인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바로 나라의 꽃봉오리같은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사업에서부터 높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평양유아원과 애육원을 현지지도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거듭 찾아보신 그림책! 거기에는 온 나라 아이들을 지구를 한눈에 굽어보는 높은 지상과 고상한 문명의 날개를 지닌 세계적인 인재를 키우시려는 우리 원수님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뜻이 깃들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보복을 뒤따르는 일군들의 눈앞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내대군이 무성한 숲을 이룬 우리 조국의 눈부신 태양이 파도쳐오르고 있다. 본사기자 허 명 숙



농장이 나아갈 길을 밝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가고있다. -평양안보농촌경리위원회 상단문화전원동농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은 나라의 농장들이 불멸영전들로 들끓고있다. 그 포전길을 걸을 때면 우리 인민들을 잘살게 하시기 위해 한평생 농장일을 찾고찾으시며 농사를 잘 짓도록 이끌어주신 어머니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더욱 사무쳐온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한번쯤은 쉬지 못하시고 팔손이 넓은 고령에도 공장과 농촌을 찾아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었다.> 오늘도 어머니수령님을 포전에 만나뵈웬데 그날이 되새겨져 가슴 후더위를 금할수 없다. 주체61(1972)년 12월 어느날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평양시 형제산구역 학산협동농장(당시)을 찾으신것이다.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어느 한 협동농장의 관리위원장으로

포전길을 걸을 때마다

일하고있던 저를 친히 불러 주시었다. 한달음에 달려가 어머니수령님을 뵈옵는 순간 나는 격정이 북받쳐 들어주시 대로 울리듯 못하였다. 그러는 저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신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농사일을 의논해보자고 불렀다고 하시며 우리 농장의 농사 정형에 대하여 물으시었다. 어머니수령님께 나는 그해 늦봄 종을 심는데다가 서리피해를 받아서 죽었다가 생겼다 대하여 말씀드리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농장의 알곡수확고도 트랙터도대도 일일이 물으시고 그만한 트랙터를 가지고 알곡을 그만쯤 얻으면 일을 잘한셈이라고 하러 치하해주시었다. 친어머니의 사랑그대였다. 그날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자신께서 오늘 여기에 온것은 농장에서 일하는 동무들의 의견을 듣고싶어서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귀중히 들어주시었다. 그 무엇인가를 적기도 하시고 거들 물기도 하시며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점심시간까지 머무시면서 농사를 잘 짓을 방향과 방도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다. 사문제를 두고 그토록 마음쓰며 추운 겨울날에도 포전길을 걸으시는 어머니수령님을 우러르는 이 가슴속에 차민친 나라의 격정이 오늘도 생생하다. 어머니수령님께서 80고령의 년로하신 몸으로 연배벌을 찾으시던 화폭들을 나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여러 농장의 포전을 찾으신것을 농사문제를 두고 깊이 마음쓰시였 농사를 잘해서 우리 인민들이

당세포강화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당 조직들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총결기, 총동원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비상히 높여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들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이 우리 당의 드림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당창건 일흔셋을 승리의 대추결정으로 빛내기 위한 올해의 총공작전에서 당세포들의 전투적역량이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당세포를 강화하자>를 발표하신 24점을 맞이하고있다. 주체80(1991)년 5월 10일에 발표된 이 로작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안아온 기념비적문헌이며 모든 당세포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앞장서서 이 끌어내리는 살아있는 당조직, 힘있는 당조직으로 꾸러나가는데서 직접한 해를 뛰어넘고자 할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당세포가 강화되고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완만히 수행하여야 당의 로선과 정책이 철저히 관철될수 있으며 우리 혁명이 빨리 전진할수 있습니다.> 당세포는 당원들의 당성발전적이고 군중속에 뿌여있는 당의 말단신경이며 당정책관철의 최후대이다. 당세포만 강화되지 않으면 역경속에서도 당이 흔들리지 않으며 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수령결사옹위, 이것은 성스러운 당기앞에서 피끓는 심장으로 새긴 우리 당원들의 제1가는 사명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당원들은 평온한 시기나 준엄한 시기나 당과 수령을 받드는 자세와 힘어 장에서 변함이 없이 하며 일련단심 당과 수령을 믿고 따르며 일일이 받들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시당위원회는 모든 당세포들을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로 꾸리는 사업을 주선으로 이루어지고 생활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어 진행해 왔다. 문화회관과 문화선전실, 회의실 등 180여개의 교양강소들에 5대교양직관들을 제시해놓고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생산현장과 포전에서 때와 장소에 구애없이 자기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최선적정치사업을 일일 상적으로 벌리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삼화농업전원협동농장 남새논을 1분조당세포와 평성고부물공작전직작업단, 북부작업단당세포를 비롯하여 당조직의 사상과 평도를 충성으로 받드는 총성의 당세포대렬이 늘어나고 당원대중이 수령결사옹위를 당과 수령이 아니라 혁명실현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선봉투사들로 튼튼히 준비되게 되었다. 현시시 우리 당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한것은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백총혁명사적지와 국사봉혁명정신을 비롯하여 시인의 혁명사적지, 혁명전적지들을 혁명전통교양의 거점답게 훌륭히 꾸려

이 힘있게 벌여지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생생선으로 틀어쥐고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투쟁에 철저히 구현해나가기 위한 당세포들의 역할과 배려와도 생각할수 없다. 백총자, 고철리를 비롯한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고려혁명선화선체계를 적극 받아들일때 대한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겨울철조건에서 도 돼지의 증체율을 하루평균 400g 보장할수 있는 구멍이식체제우리를 건설하여 고기생산량을 늘리고 돼지우리에서 나오는 질 좋은 거름으로 지력을 높일수 있는 비결도 당세포들의 결사관철의 기공과도 같은 전투적역량이다. 예로와 난판도 적지 않았다. 시인이 결행일수록 우리는 시인의 모든 당세포들이 오늘날 인민생활문제는 단초로 결성실무적인 문제라 아니라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것을 대중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주고 배부른, 형식적, 오명주의를 제애에 극복하도록 하기 위한 투쟁에 불을 붙였다. 그 과정에 시인의 평도업적전원들을 비롯한 여러 협동농장들에서 15개동 7200m의 박은의 실을 건설하고 반지하식비섯재배장, 축산기지를 건설하여 인민들이 실지로 그 덕을 볼수 있게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할수 있게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기초식물공작이 여러가지 식료품들을 생산공급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것도, 뜻깊은 평명정설을 맞으며 삼화농업전원협동농장 남새논을 건설하여 생산한 남새를 시민들에게 공급하게 된것도 당세포들이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최후

회합때에 고기국을 먹게 하라고 간곡히 당부하시며 다음해농사를 잘 지으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던 그날을 잊을수 없다. 또 한분의 백두산철쭉유인인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태양의 력사는 줄기차게 흐르고있다. 애로자들 인민을 위해 오늘도 온 나라의 방방곡곡을 뒤돌아보고 찾으신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뵈고있다. 매일같이 전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을 뜨거운 심장에 받아안으며 우리는 이 땅 위에 밝아오고야말 강성국가의 세날을 더욱 확신하고있다. 어머니수령님의 뜻대로 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해 우리 당을 받드는 길에 행장을 다 바칠것을 다짐고 말씀드리었다. 평양시농군평원위원회 위원장 허 덕 복

당세포의 승결과야 당의 승결과 당세포의 목소리이자 당의 목소리라는것을 다시금 깊이 새기게 한 날이였다. 당세포의 전투력은 세포비서들의 준비도와도 밀접하게 달려있다. 시당위원회의 일군들은 한개 단위씩 담당하고 내려가 당세포비서들을 만나 교양사업도 하고 사명감도 주며 그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데 힘을 넣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세포비서들의 날을 통하여 세포비서들의 정치실무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과 당정책관철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교환하는 사업도 실속있게 진행해나갔다. 뿐만아니라 모든 세포비서들이 선군시대의 당조급일군으로서 10가지 품성을 지니고 인신적으로 대충을 이끌어내도록 힘있게 떨쳐야 하였다. 지금 우리 당세포비서들속에는 그러면 명이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오레동안 당조급일군의 영예를 빛내어 나가는 미려운 최후병들도 있고 자기 집일보다 동지들과 군중속에 자기 기를 불태우며 먼저 뛰어다니기 위하여 뛰어나는 정치실무부자들도 있다. 이런 당세포비서들이 많기에 당세포들이 전투력있고 힘있는 전위대로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우리 당을 특유영예군인들과 조국보위의 길로 특유영예군인들을 유가족들에게 성실성있게 마련한 물자들을 안겨주고 적극 고무해주어 그들의 심장마다에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이 더욱 깊이 심어주었다. 지난날 맺었던 못하게 살아온것으로 하여 마음속고 충을 길어오는 사람들을 꾸준히 교양하고 이끌어주어 사회와 집단앞에 다시 내세워준것은 그들의 심장마다

자연과의 전쟁, 산림복구전투에 전당, 전군, 전민이 펼쳐나서자!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10년만에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킬때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전국각지에서 산림복구전투가 계속 펼쳐져 벌어지고있다.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조국해방 일흔둘과 당창건 일흔둘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온 나라의 수림과, 원림화를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려는 전민군민의 불같은 애국열정이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선군조선의 새로운 주제 100년대에 사회주의국도건설의 빛나는 전성기를 열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며 모든 산들을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일신시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인 산림복구전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자면 령광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산림을 조성하는것과 함께 산림보호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산에 나무를 아무리 많이 심어도 보호관리 잘하지 못하면 산림복구가 얻을 수 없으며 산림보호를 떠나 산림복구전투의 승리를 생각할 수 없다.

이처럼 중요한 산림복구사업에서 항시적으로 나서는 선차적인 과업은 산불피해를 막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산불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산림보호사업에서도 기본은 군중발동이다

일부 지역들에서의 산불방지사업을 두고

은 나라의 산림을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산림복구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모든 지역, 모든 단위들에서는 산불방지를 산림보호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산불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평양시 강남군에서 이와 관련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군에서는 당정책의 요구대로 산림조성과 산림보호사업을 다같이 내밀면서 산불피해를 막는데 커다란 힘을 쏟고있다. 산불감시와 통보, 군중동원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 있고 군안의 모든 단위들에 방화기제도 잘 갖추어놓았다.

특히 산림보호와 관련한 주민교양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군에서는 산불이 쉽게 날수 있는 봄철을 맞아 산불방지를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 있다. 이 기간에 산불방지를 위한 교양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 있다.

위험요소를 스스로 찾아내게 되었고 산속이나 산주변에서 불놀이하는 현상이 한낱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평양남도 순천시에서도 산불방지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시에서는 산불감시를 위한 고정초소를 20개에서 40개로, 이동초소는 30개에서 50개로 늘리고 지역의 산들에서 수백명에 달하는 산불감시성원들이 활동하게 하는 한편 군중교양을 산불방지사업의 기본과리로 삼았다. 이곳 일꾼들은 시안의 주민들속에서 산불방지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일관성있게 벌이고 나라의 산림을 아끼고 사랑하는 군중적소행들을 적극 소개전파하여 모두가 따라배우도록 하였다. 실제로 순천시 금천리에서는 리일꾼들이 주민들속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해설담화사업과 선전선동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임으로써 산불방지사업이 군중적으로 힘있게 벌어지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산불피해를 막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하고 사소한 산불위험현상과도 강한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니 산불이 날아가지 않을것이다.

정치사업, 사상사업을 앞세워 대중을 분발시키며 이처럼 산불피해도 능히 막고 산림복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사상의 포문을 열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승리를 이룩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정치사업, 사상사업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업에서도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황해남도 벽성군, 강령군의 실태가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난 3월 벽성군에서 산불이 났다. 안포

리의 일부 주민들이 야산에서 염소방목을 하면서 휴식장에 피우지 말아야 할 불을 피웠는데 바람에 불씨가 날렸던것이다. 사람들이 동원되어 제때에 불을 끄기때문에 당정책이 지니고 있는 힘을 다 발휘할수 있었다.

같은 달 강령군에서도 인봉리의 한 주민이 밭을 정리하다가 하면서 산주변에서 불놀이를 하여 산불을 발생시켰다.

단순히 부주의로 인한 결과 아니다. 당사자들은 다 공민적자각과 준법의식이 부족하였다.

하지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산림보호는 몇몇 사람의 힘으로만 할수 없다. 전체 인민이 펼쳐나 산림복구사업을 군중적으로 진행하는것이 당정책의 요구이다.

우리 인민들속에는 당정책을 리해하지 못하고 접수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당정책을 자기의 사업과 생활의 신조로 삼고 당의 의도에 따라 일하도록 일꾼들이 인민들에게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혁명적으로 벌리는것이다.

만약 벽성군 안포리와 강령군 인봉리 일꾼들이 장난감이나 순천시의 일꾼들처럼 군중을 발동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앞세워 모든 주민들을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단단히 각성시켰더라면 공민적자각과 준법의식이 높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것이다.

일꾼들이 당에서 중시하는 산림복구전투의 중요성을 인민들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치밀하게 짜고 들고 자기 단위의 마지막 한사람까지 만나 정신상태를 진단하고 제때에 사상공세의 명중포화를 들어대었다면 어떻게 입산규정을 어기고 라이터를 가진채 산에 들어가거나 불놀이를 하는 현상이 나타났겠는가. 당에서 제시한대로 누구나 당정책을 제

집안일처럼 힘히 알도록 선전선동사업을 집중적으로, 공격적으로 벌이지 못했기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야 할것이다. 일꾼들이 사상의 무기를 메고 목적이식적으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누구나 당의 의도를 뼈에 사무치게 간직하도록 사람들의 사업을 진지하고 열심히 할수 없었던것으로 하여 나지 않을 산불이 나게 된것이다. 특히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군중사업 방법의 요구대로 자기 단위 매 사람의 머리를 손끝부터 들어다보면 알았는 처방을 가지고 사람들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따르는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적용하여 교양사업을 심도있게 하지 못한 결과 산림복구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벽한 현실앞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나타났듯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실태는 모든 지역, 모든 단위의 일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있다.

산불방지를 틀어쥐지 않고 사상교양사업에서 형식주의를 쏟아버리지 않는다면 당정책을 제대로 관철할수 없는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열을 이끌어내갈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치신것처럼 사람의 사상은 혁명적인사나 맹세보다 실천과 결과에서 나타난다.

현실은 당정책이 제대로 관철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것이 전적으로 사람들의 사상이 달라졌으며 주요하게는 일꾼들이 군중교양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는것을 증명해내고있다.

사상교양사업을 잘하여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면 못해낼 일이 없다. 무슨 일에서나 가장 큰 예비는 대중의 정신력에 있다. 일꾼들이 사상의 힘바탕을 세차게 일으키면 일부 흐리러분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도 다 정신을 차리게 되며 당정책관철에서 성과를 거두게 된다. 각성되고 동원된 군중

의 노력, 애국열의로 총만된 전민의 주인다운 역할이야말로 나라의 산림을 지켜낼수 있는 위대한 힘인것이다.

모든 일꾼들은 산불을 내는것도 사람이 되고 산불을 막는것도 사람이란것을 명심하고 당의 의도에 따라 산림보호사업을 철저히 사람들의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산불막이선을 설치하고 방화기제를 갖추며 산불감시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대중의 심장속에 산림보호사업은 곧 공민의 향심을 결집하는 마당이고 조국의 미래를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새겨주어 모두가 높은 자각과 열정을 안고 산림보호사업에 주인공되게 참가하도록 하며 온 나라에 자기 향로의 산림을 스스로 가꾸고 지키는 애국적자각이 차닫치게 하여야 한다.

일꾼들은 아래 단위들에 포지나 하고 회의에서 강조하는 식으로 산림보호사업을 대치하지 말고 책상머리를 떠나 항일 유격대식으로 배양을 하고 현실에 적극 뛰어들어 나라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산불을 단 하나도 놓치지 말고 책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해당 부문 일꾼들은 산림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와 법적통제를 강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입산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며 입산에 침해를 주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각 도, 시, 군산림복구전투지휘부들에서는 지역의 산불감시와 통보, 군중동원체계를 더 완벽하게 세우고 산불이 나면 제때에 끝수 있도록 모든 단위들에서 필요한 물질기술적준비를 튼튼히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산불막이선을 규정대로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여 계절적으로 산불이 쉽게 날수 있는 시기에 사소한 산불위험요소도 나타나지 않도록 방화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

그러하여 나라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후대들에게 만년대계의 재부를 물려주기 위한 산림복구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금 해마다 국토관리총동원기간이요, 봄철나무심기 열강이요 하면서 나무심기를 하고있지만 나라의 산림형편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있는것은 나무심기를 철저히 하지 않아 사람들이 놓치 못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선전군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심심 높이 펼쳐나 산림복구전투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여기에는 남다른 비열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를 받아안았을 때였다. 산림복구전투를 몇해만에 끝낼 목표를 높이 세운 군일꾼들은 여기서 주전으로 틀어쥐어야 할 문제를 찾기 위해 지난해 나무심기정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물론 지난 시기 군의 산림조성과 방화사업에서는 성과가 많았다. 하지만 해마다 온 군이 총동원되어 많은 나무를 심었지만 사람들이 그리 놓치 못하였다. 혁신적인안목으로 현실을 대할

수실과 대비할바가 못났다.

3월달 5일까지의 기간은 계절적으로 산불이 쉽게 날수 있는 시기이다. 봄철의 바삭 마른 가랑잎들과 풀대들은 일단 불이 달리면 화약이나 같다. 지난 기간 나라의 산림자원이 많이 줄어든것은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이 난것과도 적지 않게 관련되어있다.

산림복구전투가 벌어지고있는 오늘 산불방지를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산불을 막는가 못 막는가 하는것

을 위해 대한 수령님들께서 나라의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바치신 로고를 깊이 새겨주고 산림보호와 관련한 당정책과 규정들을 해설해주면서 산불방지사업에 적극 열차도록 하였다.

강남군 영진리를 돌아본데 의하면 어른 으로부터 나이 어린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모든 사람들이 입산규정을 잘 알고있었으며 누구나 산불방지사업에 주인공되게 참가하고있었다. 리일꾼들이 자기 단위의 단 한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두 만나 공민적자각과 준법의식을 높이 발휘하도록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린 결과 주민들이 산불

가치는 중요성을 과학기술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또한 군안의 모든 단위들에서 심은 나무들에 관동이나 파박막을 책임지고 농도도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고 무조건 집행하도록 하였다.

군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산림복구전투는 애국심을 결집하는 마당이라고 하면서 한그루의 나무를 심어도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켜왔다. 그러하여 봄철에 심은 나무들의 사들음을 높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 일꾼들은 성과가 클수록 끊임없이 높은 목표를 제기하며 완강하게 내밀었다. 산의 경사도에 따라 줄사이 간격과 수중에 따르는 나무와 나무사이간격을 기술적요구대로 보장하도록 이끌어주었다.

결과 올해에 들어와 심은 나무들에서 사들음이 높여져 몇해안 산림복구전투를 성과적으로 계속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농고물 때 자기 군의 산림복구전투를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리장에서 작전하고 전개해나가고있는 이들의 선취적인 사업기풍은 얼마나 좋은가.

김 강 철

다시 세운 산불감시 및 군중동원체계를 순 전 시 에 서

직사업을 더욱 면밀하게 해야 하였다.

이 문제를 놓고 일꾼들은 현지지를 돌아다니며 토론을 벌였다. 현실을 혁신적인 안목으로 보면서 창조적인 지혜를 합치면 합리적인 방도가 나지않는다면이다. 시에서는 사람들의 발길이 적게 미치는 산림지구들이 있는가 하면 룬전지대들과 사람들의 레량이 많은 도로주변에도 높은 산불감시초소를 더 늘리고 모든 초소들에 감시원을 20~50명씩 배치하여 산불을 미리막을수 있다는 결론이 떨어졌다.

결과 산불감시초소를 더 늘리고 20~50명씩 배치하여 산불을 미리막을수 있다는 결론이 떨어졌다.

결과 산불감시초소를 더 늘리고 20~50명씩 배치하여 산불을 미리막을수 있다는 결론이 떨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산불을 막는가 못 막는가 하는것은 산불방지를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과 함께 산림보호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산불이 나면 오래동안 애써 조성한 산림자원이 순간에 제대미로 된다. 그 피해는 병해충이나 기타 다른 자연재해로 하여 입는 손실과 대비할바가 못났다.

3월달 5일까지의 기간은 계절적으로 산불이 쉽게 날수 있는 시기이다. 봄철의 바삭 마른 가랑잎들과 풀대들은 일단 불이 달리면 화약이나 같다. 지난 기간 나라의 산림자원이 많이 줄어든것은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이 난것과도 적지 않게 관련되어있다.

산림복구전투가 벌어지고있는 오늘 산불방지를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산불을 막는가 못 막는가 하는것

사람들보장에서 들어진 두가지 원칙

선전군 일꾼들의 사업에서

매 원인과 방도를 찾을수 있다. 문제를 이렇게 본 군산림경영소 지체인원들 비롯한 일꾼들은 산에 올랐다. 그리고는 죽은 나무를 찾아내고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기 위해 연방을 파헤쳤다. 나무뿌리를 따라있었는데 구멍이 밀려있는 채 썩지 않은 가랑잎들이 들어있었다.

나무가 죽은것은 가랑잎들이 땅속의 물과 영양분들을 차단하여 뿌리가 마른데 있었다. 일꾼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한가지 원인을 찾아냈다. 그것은 뿌리가 마른것이 토양속으로 공기가 들어가지나 태양열에 의하여 땅속에 있는 물기가 증발되는데 있다는것이였다. 봄철에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토양의 부풀음현상이 나타난다. 이때 뿌리는 토양속으로 들어가지게 된다. 또한 심은 나무가 바람에 의하여 흔들릴 때에도 토양에 틈이 생겨 뿌리가 마르게 된다.

일꾼들이 찾은 교훈은 컸다. 심은 나무를 모두 살려내는데는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정책행위원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일하지 못하였던것이다. 산림복구전투를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리장에서 작전하고 전개해나가지 못하면 조국의 산들은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려는 당의 뜻을 철저히 관철할수 없었다.

이로부터 일꾼들은 나무모의 사들음을 높이기 위하여 사색과 토를 제거한 끝에 나무뿌리를 심을 때 지켜야 할 두가지 원칙을 규정하였다.

첫째로는 나무심기에서 질 좋은 부식토를 깔도록 하여 뿌리가 마르는것을 막도록 하였다. 지난해 시기에는 질 좋은 부식토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모든 사람들에게 과학기술적으로 독특한 인식시키지 못하다보니 그 질에 관계없이 아무것이나 많이 주면 좋은것으로 알고있었다.

여기로부터 일꾼들은 올해에 산림복구전투에서 질 좋은 부식토를 깔아주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큰 힘을

넣었다. 며칠후 나무심기와 관련한 보여주기사업이 조직된데 이어 군안의 로동자, 사무원, 청소년학생들이 펼쳐나갔다. 보여주기사업의 필요성은 매우 컸다. 군안의 모든 단위 일꾼들은 중앙원들이 자기 맡은 구간의 나무구멍이 들어질수록 부식토를 넣는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다음 나무를 심도록 하였다.

이를 계기로 모든 단위에서 질 좋은 부식토를 생산보장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그 어디서나 질 좋은 부식토생산으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가 벌어졌다.

일꾼들이 내세운 둘째 원칙은 공기의 땅속침투와 물기증발현상을 막도록 하였다. 일꾼들은 모든 단위, 모든 사람들이 나무를 심고 뿌리까지 잘 다듬어 주어야 하는 다음 그 주위에 관동을 여러 개 지질러놓도록 하였다. 관동이 전개해나가고있는 이들의 선취적인 사업기풍은 얼마나 좋은가.

김 강 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산불을 막는가 못 막는가 하는것은 산불방지를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과 함께 산림보호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산불이 나면 오래동안 애써 조성한 산림자원이 순간에 제대미로 된다. 그 피해는 병해충이나 기타 다른 자연재해로 하여 입는 손실과 대비할바가 못났다.

3월달 5일까지의 기간은 계절적으로 산불이 쉽게 날수 있는 시기이다. 봄철의 바삭 마른 가랑잎들과 풀대들은 일단 불이 달리면 화약이나 같다. 지난 기간 나라의 산림자원이 많이 줄어든것은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이 난것과도 적지 않게 관련되어있다.

산림복구전투가 벌어지고있는 오늘 산불방지를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산불을 막는가 못 막는가 하는것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산불을 막는가 못 막는가 하는것은 산불방지를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과 함께 산림보호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산불이 나면 오래동안 애써 조성한 산림자원이 순간에 제대미로 된다. 그 피해는 병해충이나 기타 다른 자연재해로 하여 입는 손실과 대비할바가 못났다.

3월달 5일까지의 기간은 계절적으로 산불이 쉽게 날수 있는 시기이다. 봄철의 바삭 마른 가랑잎들과 풀대들은 일단 불이 달리면 화약이나 같다. 지난 기간 나라의 산림자원이 많이 줄어든것은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이 난것과도 적지 않게 관련되어있다.

산림복구전투가 벌어지고있는 오늘 산불방지를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산불을 막는가 못 막는가 하는것

로씨야의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

해방탑과 소련군렬사들의 묘에 화환 진정

로씨야의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 9일 해방탑에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해방탑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화환진정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성동지와 김형룡 조선인민군 특근상장, 리길성 위무성 부상, 조선로씨야연방 사회회 위원장 김진경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철봉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서 일꾼들, 시내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알렉산드르 마제고라 주조선로씨야연방 특명전대사, 대사로 산성원들,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로씨야 손님들과 여러 나라의 외교대사들, 대사관주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로씨야 국기, 연방국기와 우리 나라 국기가 추대되었다.

조선인민군 주조선인민군 특근상장, 리길성 위무성 부상, 조선로씨야연방 사회회 위원장 김진경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철봉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서 일꾼들, 시내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산불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도, 시, 군들에서 산불감시와 통보, 군중동원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산불감시를 강화하며 산불막이선을 규정대로 만들어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제때에 끄거나 더 퍼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선군을 돌아보느라던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것이 있다.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입산질서서를 알려주는 게시판들이 있다. 어떻게 되어 사람들이 산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할 입산질서서서판이 늘어났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군산림경영소일꾼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우리 군은 산이 80%이

산불방지를 철저히 세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도, 시, 군들에서 산불감시와 통보, 군중동원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산불감시를 강화하며 산불막이선을 규정대로 만들어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제때에 끄거나 더 퍼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선군을 돌아보느라던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것이 있다.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입산질서서를 알려주는 게시판들이 있다. 어떻게 되어 사람들이 산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할 입산질서서서판이 늘어났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군산림경영소일꾼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우리 군은 산이 80%이

다시 세운 산불감시 및 군중동원체계를 순 전 시 에 서

직사업을 더욱 면밀하게 해야 하였다.

이 문제를 놓고 일꾼들은 현지지를 돌아다니며 토론을 벌였다. 현실을 혁신적인 안목으로 보면서 창조적인 지혜를 합치면 합리적인 방도가 나지않는다면이다. 시에서는 사람들의 발길이 적게 미치는 산림지구들이 있는가 하면 룬전지대들과 사람들의 레량이 많은 도로주변에도 높은 산불감시초소를 더 늘리고 모든 초소들에 감시원을 20~50명씩 배치하여 산불을 미리막을수 있다는 결론이 떨어졌다.

결과 산불감시초소를 더 늘리고 20~50명씩 배치하여 산불을 미리막을수 있다는 결론이 떨어졌다.

결과 산불감시초소를 더 늘리고 20~50명씩 배치하여 산불을 미리막을수 있다는 결론이 떨어졌다.

늘어난 입산질서 게시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도, 시, 군들에서 산불감시와 통보, 군중동원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산불감시를 강화하며 산불막이선을 규정대로 만들어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제때에 끄거나 더 퍼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선군을 돌아보느라던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것이 있다.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입산질서서를 알려주는 게시판들이 있다. 어떻게 되어 사람들이 산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할 입산질서서서판이 늘어났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군산림경영소일꾼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우리 군은 산이 80%이

제18차 평양불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할 여러 나라의 지역 대표단을 도차

제18차 평양불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할 여러 나라의 지역 대표단을 도차하였다. 이에 앞서 로씨야, 이 시아, 중국, 중국대륙의 대표단들이 9일 비행기와 열차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에 앞서 로씨야, 이 시아, 중국, 중국대륙의 대표단들이 9일 비행기와 열차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에 앞서 로씨야, 이 시아, 중국, 중국대륙의 대표단들이 9일 비행기와 열차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몽골인민혁명당대표단 귀국

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꾼들과 주요 몽골대사관

성원들이 전승하였다

성원들이 전승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중체육정책관철에서도 선구자의 영예를 떨치며

위원회, 성, 중앙기관일군바드민턴경기를 두고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7일까지 청춘저리 바드민턴경기관에서는 위원회, 성, 중앙기관일군바드민턴경기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경기에 참가한 모든 단체들이 4개 조로 나누어 치열한

우승경쟁전을 벌였다. 매 팀들이 남자단식과 혼성복식, 남자복식경기순서로 승자전을 진행하여 조별최승위를 결정하던 바드민턴경기에서는 체육강국건설에서도 언제나 앞장설 일념을 안고 평시에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온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의 뜨거운 체육열의가 남김없이 발휘되었다.

우연한 승

이번 경기에서 과문을 일으킨 것은 은하지도국이었다. 한것은 지난날경기에서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이 단체가 올해경기에서는 자기 조에서 단연 우승하였기때문이었다. 우연한 승리인가. 그렇지 않다. 그만큼 경기에서 우승할수 있는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었기때문이다. 하다면 조건이 남달리 좋아서인가. 그렇지 않다. 지도국에서는 구내에서 바드민턴경기를 진행할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고려하여 수도의 여러곳에 꾸러진 체육시설들을 적극 리용하였다. 경기준비를 위한 훈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기본은 여기에 있지 않다.

승의 없다

우승경쟁전을 벌였다. 매 팀들이 남자단식과 혼성복식, 남자복식경기순서로 승자전을 진행하여 조별최승위를 결정하던 바드민턴경기에서는 체육강국건설에서도 언제나 앞장설 일념을 안고 평시에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온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의 뜨거운 체육열의가 남김없이 발휘되었다.

이런 경기에서 과문을 일으킨 것은 은하지도국이었다. 한것은 지난날경기에서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이 단체가 올해경기에서는 자기 조에서 단연 우승하였기때문이었다. 우연한 승리인가. 그렇지 않다. 그만큼 경기에서 우승할수 있는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었기때문이다. 하다면 조건이 남달리 좋아서인가. 그렇지 않다. 지도국에서는 구내에서 바드민턴경기를 진행할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고려하여 수도의 여러곳에 꾸러진 체육시설들을 적극 리용하였다. 경기준비를 위한 훈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기본은 여기에 있지 않다.

내 우승의 영예를 떨치었다. 이렇게 수매량정성립 선수들은 이번 경기를 통하여 2면승의 자랑을 꽃피웠다. 수매량정성립은 모두 부국강성사업 일군들이 남자선수들과 부원인 한명의 나자선수로 구성되었다.

성 의 명에 자기들의 경기결과에 달려있다는 자각을 깊이 새겨두고 합치며 체지있는 기술과 전술들을 능란하게 활용하면서 경기조직을 잘하여 바드민턴전문가들을 비롯한 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있는 선수들

매량정성립은 첫 경기부터 마지막경기까지 상대들을 2:0으로 누르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되자나 남자복식선수들은 한번도 경기를 해보지 못하고 우승의 금메달을 수여받게 되었다.

성 의 명에 자기들의 경기결과에 달려있다는 자각을 깊이 새겨두고 합치며 체지있는 기술과 전술들을 능란하게 활용하면서 경기조직을 잘하여 바드민턴전문가들을 비롯한 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수 등을 잘 살리면서 완강한 투지를 발휘하여 연속 점수를 올렸다. 순간적인 강타를 연속 들이대면서 앞선내리치기를 비롯한 여러 기술들을 적극 배합하며 마침내 우승의 영예를 지니었다.

부국강 류상, 부원 김성민 등 무명도 높은 기술들을 발휘하면서 힘이 우승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명단에

이런 경기에서 과문을 일으킨 것은 은하지도국이었다. 한것은 지난날경기에서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이 단체가 올해경기에서는 자기 조에서 단연 우승하였기때문이었다. 우연한 승리인가. 그렇지 않다. 그만큼 경기에서 우승할수 있는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었기때문이다. 하다면 조건이 남달리 좋아서인가. 그렇지 않다. 지도국에서는 구내에서 바드민턴경기를 진행할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고려하여 수도의 여러곳에 꾸러진 체육시설들을 적극 리용하였다. 경기준비를 위한 훈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기본은 여기에 있지 않다.

체육과학발전에 이바지할 열의

제3차 전국교육부 체육과학성공전시회 진행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강국건설에서 승리의 열의는 체육을 과학화하는 데 있습니다.》

얼마전 김책공업종합대학체육관에서 제3차 전국교육부 체육과학성공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원과 경기에도 이바지할수 있는 것으로 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라진해운대학 교원 장영애동무의 논문과 남포공업전문학교에서 내놓은 체육도서는 당의 체육강국건설리론을 전면적으로 해설론증하고 체육부문에 쌓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에하는 원수님의 령도업적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체육강국건설에 펼쳐나신 체육인들과 인민들을 김정일애국주의로 교양하는 데 이바지하는것으로 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제3차 전국교육부

이런 경기에서 과문을 일으킨 것은 은하지도국이었다. 한것은 지난날경기에서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이 단체가 올해경기에서는 자기 조에서 단연 우승하였기때문이었다. 우연한 승리인가. 그렇지 않다. 그만큼 경기에서 우승할수 있는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었기때문이다. 하다면 조건이 남달리 좋아서인가. 그렇지 않다. 지도국에서는 구내에서 바드민턴경기를 진행할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고려하여 수도의 여러곳에 꾸러진 체육시설들을 적극 리용하였다. 경기준비를 위한 훈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기본은 여기에 있지 않다.

이바지할 열의

이런 경기에서 과문을 일으킨 것은 은하지도국이었다. 한것은 지난날경기에서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이 단체가 올해경기에서는 자기 조에서 단연 우승하였기때문이었다. 우연한 승리인가. 그렇지 않다. 그만큼 경기에서 우승할수 있는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었기때문이다. 하다면 조건이 남달리 좋아서인가. 그렇지 않다. 지도국에서는 구내에서 바드민턴경기를 진행할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고려하여 수도의 여러곳에 꾸러진 체육시설들을 적극 리용하였다. 경기준비를 위한 훈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기본은 여기에 있지 않다.

원과 경기에도 이바지할수 있는 것으로 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라진해운대학 교원 장영애동무의 논문과 남포공업전문학교에서 내놓은 체육도서는 당의 체육강국건설리론을 전면적으로 해설론증하고 체육부문에 쌓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에하는 원수님의 령도업적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체육강국건설에 펼쳐나신 체육인들과 인민들을 김정일애국주의로 교양하는 데 이바지하는것으로 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바지할 열의

이런 경기에서 과문을 일으킨 것은 은하지도국이었다. 한것은 지난날경기에서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이 단체가 올해경기에서는 자기 조에서 단연 우승하였기때문이었다. 우연한 승리인가. 그렇지 않다. 그만큼 경기에서 우승할수 있는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었기때문이다. 하다면 조건이 남달리 좋아서인가. 그렇지 않다. 지도국에서는 구내에서 바드민턴경기를 진행할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고려하여 수도의 여러곳에 꾸러진 체육시설들을 적극 리용하였다. 경기준비를 위한 훈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기본은 여기에 있지 않다.

늘어나는 나무들, 커가는 마음들

남포시 천리마구역 고창고급중학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모든 산에 푸른 숲이 울창하게 하자면 나무심기를 전근적운동으로 근기있게 벌려야 합니다.》

가 합심하여 키운 나무모들을 옮겨심은것이라고 한다. 특히 이 학교에서 해마다 펼쳐지는 광경의 하나는 졸업생들이 인민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자기 부모와 함께 모교에 나무를 심는것이다.

라 재학생들의 부모들도 성의껏 구해온 나무모를 자식들과 함께 학교주변에 심기도 한다. 이곳을 수십년전에 졸업한 천리마구역 제창초급중학교 교장 최창남동무도 올해에 소나무모를 구하여 현재 학교에 다니는 딸 최진향과 함께 모교에 심었다.

남포시 천리마구역 고창고급중학교의 건립과수원과 교재뿐만 아니라 학교주변에는 수백종에 수만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

교장 김태선동무의 말에 의하면 이 학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입생들과 졸업생들, 학부모들과 교원들이 해마다 나무를 심고있다고 한다. 올해에만 하여도 신입생들과 졸업생들이 교원, 학부모들과 함께 세잎소나무, 평양단풍나무, 산수유나무, 초피나무, 대추나무 등 130여그루의 나무를 학교주변에 새로 심었다. 그대다수가 학교의 양묘장에서 공훈교원윤우동무와 교원 김병철동무

가 합심하여 키운 나무모들을 옮겨심은것이라고 한다. 특히 이 학교에서 해마다 펼쳐지는 광경의 하나는 졸업생들이 인민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자기 부모와 함께 모교에 나무를 심는것이다.

라 재학생들의 부모들도 성의껏 구해온 나무모를 자식들과 함께 학교주변에 심기도 한다. 이곳을 수십년전에 졸업한 천리마구역 제창초급중학교 교장 최창남동무도 올해에 소나무모를 구하여 현재 학교에 다니는 딸 최진향과 함께 모교에 심었다.



남포시 천리마구역 고창고급중학교에서 나무심기 경기가 열리고 있다.

《선생님, 이게 아이 전혀 안 보여요!》

귀전에 메아리치는 처녀의 목소리에 김달영은 소스라치듯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꿈속이였지만 그 목소리는 생시처럼 실감하고 파고들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평안남도 대동군에 위치한 대동맹학교 학생 강금녀였다.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된것은 몇해전에 본 의과학기술도서의 글에서 떠올라하였다. 그 도서에는 선천적인 눈질병이 합병된 근원과 같은 경우의 환자로서 나타낸 치료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내용이 서술되어있었다.

이런 경기에서 과문을 일으킨 것은 은하지도국이었다. 한것은 지난날경기에서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이 단체가 올해경기에서는 자기 조에서 단연 우승하였기때문이었다. 우연한 승리인가. 그렇지 않다. 그만큼 경기에서 우승할수 있는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었기때문이다. 하다면 조건이 남달리 좋아서인가. 그렇지 않다. 지도국에서는 구내에서 바드민턴경기를 진행할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고려하여 수도의 여러곳에 꾸러진 체육시설들을 적극 리용하였다. 경기준비를 위한 훈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기본은 여기에 있지 않다.

잔디재배관리에서

왕가물을 극복하려면(2)

기타는 잔디밭과 토양경면에서의 물기날기로 갈라볼수 있는데 잔디밭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토양경면에서의 물기날기가 큰 몫을 차지하지만 잔디밭이 완성된 이후에는 잔디밭을 통한 물기날기가 더 큰 몫을 차지하게 된다.

리가 땅속깊이 뻗어내려가므로 뿌리에 의한 물흡수가 활발해지고 가을에 대한 건달성이 높아지게 된다.

반대로 짙기늘이를 낮추면 피복물이 떨어져 물기날기가 많아지고 잔디뿌리의 생활력이 약해져가는 회수가 늘어나 짙기늘이 부위에 물기날기가 증가되게 된다.

이런 경기에서 과문을 일으킨 것은 은하지도국이었다. 한것은 지난날경기에서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이 단체가 올해경기에서는 자기 조에서 단연 우승하였기때문이었다. 우연한 승리인가. 그렇지 않다. 그만큼 경기에서 우승할수 있는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었기때문이다. 하다면 조건이 남달리 좋아서인가. 그렇지 않다. 지도국에서는 구내에서 바드민턴경기를 진행할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고려하여 수도의 여러곳에 꾸러진 체육시설들을 적극 리용하였다. 경기준비를 위한 훈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기본은 여기에 있지 않다.

이런 경기에서 과문을 일으킨 것은 은하지도국이었다. 한것은 지난날경기에서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이 단체가 올해경기에서는 자기 조에서 단연 우승하였기때문이었다. 우연한 승리인가. 그렇지 않다. 그만큼 경기에서 우승할수 있는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었기때문이다. 하다면 조건이 남달리 좋아서인가. 그렇지 않다. 지도국에서는 구내에서 바드민턴경기를 진행할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고려하여 수도의 여러곳에 꾸러진 체육시설들을 적극 리용하였다. 경기준비를 위한 훈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기본은 여기에 있지 않다.

여러 나라의 특이한 자연풍치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백성진

킬리만자로산은 탄자니아의 북동부에 위치하고있다.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산인 이 산은 3개의 사화산 즉 키보산, 마벤지산, 킬리만자로 산이 융합되어 있다. 이 지역은 열대림으로 부터 만년설에 이르기까지 자연경관이 다양하며 각기 다른 동식물들이 서식하고있다.

수확하는 배추파에 속하는 양배추의 일종으로서 원산지는 미중해연안이다.

높이가 30~50cm이며 꽃봉오리들이 한데 뭉쳐 구모양의 큰 꽃덩이를 형성하는것이 특징이다.

이런 경기에서 과문을 일으킨 것은 은하지도국이었다. 한것은 지난날경기에서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이 단체가 올해경기에서는 자기 조에서 단연 우승하였기때문이었다. 우연한 승리인가. 그렇지 않다. 그만큼 경기에서 우승할수 있는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었기때문이다. 하다면 조건이 남달리 좋아서인가. 그렇지 않다. 지도국에서는 구내에서 바드민턴경기를 진행할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고려하여 수도의 여러곳에 꾸러진 체육시설들을 적극 리용하였다. 경기준비를 위한 훈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기본은 여기에 있지 않다.

이런 경기에서 과문을 일으킨 것은 은하지도국이었다. 한것은 지난날경기에서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이 단체가 올해경기에서는 자기 조에서 단연 우승하였기때문이었다. 우연한 승리인가. 그렇지 않다. 그만큼 경기에서 우승할수 있는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었기때문이다. 하다면 조건이 남달리 좋아서인가. 그렇지 않다. 지도국에서는 구내에서 바드민턴경기를 진행할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고려하여 수도의 여러곳에 꾸러진 체육시설들을 적극 리용하였다. 경기준비를 위한 훈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기본은 여기에 있지 않다.

실화

있었다. 음미해볼수록 도저히 자신감이 서지 않았다.

해당 질병의 치료에 대한 임상경험이 미약한 병원의료일군들의 수준으로 보아 당장은 금녀의 수술에서 성공하리라는 담보가 없었다. 김달영이 지금껏 결심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이런 경기에서 과문을 일으킨 것은 은하지도국이었다. 한것은 지난날경기에서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이 단체가 올해경기에서는 자기 조에서 단연 우승하였기때문이었다. 우연한 승리인가. 그렇지 않다. 그만큼 경기에서 우승할수 있는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었기때문이다. 하다면 조건이 남달리 좋아서인가. 그렇지 않다. 지도국에서는 구내에서 바드민턴경기를 진행할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고려하여 수도의 여러곳에 꾸러진 체육시설들을 적극 리용하였다. 경기준비를 위한 훈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기본은 여기에 있지 않다.

이런 경기에서 과문을 일으킨 것은 은하지도국이었다. 한것은 지난날경기에서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이 단체가 올해경기에서는 자기 조에서 단연 우승하였기때문이었다. 우연한 승리인가. 그렇지 않다. 그만큼 경기에서 우승할수 있는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었기때문이다. 하다면 조건이 남달리 좋아서인가. 그렇지 않다. 지도국에서는 구내에서 바드민턴경기를 진행할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고려하여 수도의 여러곳에 꾸러진 체육시설들을 적극 리용하였다. 경기준비를 위한 훈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기본은 여기에 있지 않다.

민

이런 경기에서 과문을 일으킨 것은 은하지도국이었다. 한것은 지난날경기에서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이 단체가 올해경기에서는 자기 조에서 단연 우승하였기때문이었다. 우연한 승리인가. 그렇지 않다. 그만큼 경기에서 우승할수 있는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었기때문이다. 하다면 조건이 남달리 좋아서인가. 그렇지 않다. 지도국에서는 구내에서 바드민턴경기를 진행할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고려하여 수도의 여러곳에 꾸러진 체육시설들을 적극 리용하였다. 경기준비를 위한 훈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기본은 여기에 있지 않다.

음

이런 경기에서 과문을 일으킨 것은 은하지도국이었다. 한것은 지난날경기에서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이 단체가 올해경기에서는 자기 조에서 단연 우승하였기때문이었다. 우연한 승리인가. 그렇지 않다. 그만큼 경기에서 우승할수 있는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었기때문이다. 하다면 조건이 남달리 좋아서인가. 그렇지 않다. 지도국에서는 구내에서 바드민턴경기를 진행할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고려하여 수도의 여러곳에 꾸러진 체육시설들을 적극 리용하였다. 경기준비를 위한 훈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기본은 여기에 있지 않다.

건강에 좋은 남새작물

이런 경기에서 과문을 일으킨 것은 은하지도국이었다. 한것은 지난날경기에서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이 단체가 올해경기에서는 자기 조에서 단연 우승하였기때문이었다. 우연한 승리인가. 그렇지 않다. 그만큼 경기에서 우승할수 있는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었기때문이다. 하다면 조건이 남달리 좋아서인가. 그렇지 않다. 지도국에서는 구내에서 바드민턴경기를 진행할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고려하여 수도의 여러곳에 꾸러진 체육시설들을 적극 리용하였다. 경기준비를 위한 훈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기본은 여기에 있지 않다.

실화

이런 경기에서 과문을 일으킨 것은 은하지도국이었다. 한것은 지난날경기에서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이 단체가 올해경기에서는 자기 조에서 단연 우승하였기때문이었다. 우연한 승리인가. 그렇지 않다. 그만큼 경기에서 우승할수 있는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었기때문이다. 하다면 조건이 남달리 좋아서인가. 그렇지 않다. 지도국에서는 구내에서 바드민턴경기를 진행할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고려하여 수도의 여러곳에 꾸러진 체육시설들을 적극 리용하였다. 경기준비를 위한 훈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기본은 여기에 있지 않다.

실화

이런 경기에서 과문을 일으킨 것은 은하지도국이었다. 한것은 지난날경기에서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이 단체가 올해경기에서는 자기 조에서 단연 우승하였기때문이었다. 우연한 승리인가. 그렇지 않다. 그만큼 경기에서 우승할수 있는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었기때문이다. 하다면 조건이 남달리 좋아서인가. 그렇지 않다. 지도국에서는 구내에서 바드민턴경기를 진행할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고려하여 수도의 여러곳에 꾸러진 체육시설들을 적극 리용하였다. 경기준비를 위한 훈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기본은 여기에 있지 않다.

이런 경기에서 과문을 일으킨 것은 은하지도국이었다. 한것은 지난날경기에서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이 단체가 올해경기에서는 자기 조에서 단연 우승하였기때문이었다. 우연한 승리인가. 그렇지 않다. 그만큼 경기에서 우승할수 있는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었기때문이다. 하다면 조건이 남달리 좋아서인가. 그렇지 않다. 지도국에서는 구내에서 바드민턴경기를 진행할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고려하여 수도의 여러곳에 꾸러진 체육시설들을 적극 리용하였다. 경기준비를 위한 훈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기본은 여기에 있지 않다.

이런 경기에서 과문을 일으킨 것은 은하지도국이었다. 한것은 지난날경기에서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이 단체가 올해경기에서는 자기 조에서 단연 우승하였기때문이었다. 우연한 승리인가. 그렇지 않다. 그만큼 경기에서 우승할수 있는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었기때문이다. 하다면 조건이 남달리 좋아서인가. 그렇지 않다. 지도국에서는 구내에서 바드민턴경기를 진행할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고려하여 수도의 여러곳에 꾸러진 체육시설들을 적극 리용하였다. 경기준비를 위한 훈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기본은 여기에 있지 않다.

이런 경기에서 과문을 일으킨 것은 은하지도국이었다. 한것은 지난날경기에서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이 단체가 올해경기에서는 자기 조에서 단연 우승하였기때문이었다. 우연한 승리인가. 그렇지 않다. 그만큼 경기에서 우승할수 있는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었기때문이다. 하다면 조건이 남달리 좋아서인가. 그렇지 않다. 지도국에서는 구내에서 바드민턴경기를 진행할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고려하여 수도의 여러곳에 꾸러진 체육시설들을 적극 리용하였다. 경기준비를 위한 훈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기본은 여기에 있지 않다.

이런 경기에서 과문을 일으킨 것은 은하지도국이었다. 한것은 지난날경기에서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이 단체가 올해경기에서는 자기 조에서 단연 우승하였기때문이었다. 우연한 승리인가. 그렇지 않다. 그만큼 경기에서 우승할수 있는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었기때문이다. 하다면 조건이 남달리 좋아서인가. 그렇지 않다. 지도국에서는 구내에서 바드민턴경기를 진행할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고려하여 수도의 여러곳에 꾸러진 체육시설들을 적극 리용하였다. 경기준비를 위한 훈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기본은 여기에 있지 않다.

이런 경기에서 과문을 일으킨 것은 은하지도국이었다. 한것은 지난날경기에서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이 단체가 올해경기에서는 자기 조에서 단연 우승하였기때문이었다. 우연한 승리인가. 그렇지 않다. 그만큼 경기에서 우승할수 있는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었기때문이다. 하다면 조건이 남달리 좋아서인가. 그렇지 않다. 지도국에서는 구내에서 바드민턴경기를 진행할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고려하여 수도의 여러곳에 꾸러진 체육시설들을 적극 리용하였다. 경기준비를 위한 훈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기본은 여기에 있지 않다.

이런 경기에서 과문을 일으킨 것은 은하지도국이었다. 한것은 지난날경기에서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이 단체가 올해경기에서는 자기 조에서 단연 우승하였기때문이었다. 우연한 승리인가. 그렇지 않다. 그만큼 경기에서 우승할수 있는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었기때문이다. 하다면 조건이 남달리 좋아서인가. 그렇지 않다. 지도국에서는 구내에서 바드민턴경기를 진행할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고려하여 수도의 여러곳에 꾸러진 체육시설들을 적극 리용하였다. 경기준비를 위한 훈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기본은 여기에 있지 않다.

대결소동이 계속되는 한 대화는 없다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타령을 자주 입에 올리면서 《민간교류추진》으로 북한관계를 개선할 지가 있는듯이 생색을 내고있다. 지난 5월 1일 통일부당국자는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이 끝난것과 관련하여 《민간교류추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면서 《남북관계의 정상화》나, 《민간교류의 적극적지원》이나, 《대북인도적사업》이나 하고 너스레를 떨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총부리를 내대고 《격렬》이나, 《웅성》이니 하면서 피를 물고 덤벼들던 대결파들이 갑자기 낯색을 바꾸어 《민간교류추진》이니 뭐니 하며 노숙을 부리는것은 실로 역경기 그지없다. 외세와의 북침합동군사연습과 광란적인 반공화국도박소동으로 북한관계를 파국에 몰아넣고 북한인간교류마저 진행될수 없게 해방을 피뢰피당이 그 용납 못할 죄악에 대해 은 민족앞에 사죄하고 대결정책을 철회할 대신 뉘그러게 《민간교류》나발을 불어대는것은 불순한 속심의 발로이다. 그것이 북한관계를 돌이킬수 없는 극도의 긴장상태에 빠뜨린 자들의 반공인격적 악행을 가리우고 사태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주기 위한 통치위기에 있어 벗어 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는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러나 피뢰피당은 그 어떤 견보소로써도 대결방정사로서의 저들의 흉악한 정체를 깨트려주었다.

남조선피뢰피당은 무분별한 북침전쟁도박소동으로 북조선의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를 고조시키는 정세교류의 주범이다.

북남관계가 개선되려면 대화와 관계개선의 분위기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총포성이 살벌하게 울리는 속에서서 그런 대화와 관계개선에 대하여는 생각할수 없다. 그로부터 우리는 조국해방 일흔이 되는 올해에 북한관계에서

의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려는 승고한 애국애족적립장을 안고 남조선당국에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박소동을 중지할때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고 그를 위한 현실적인 제안도 내놓았다. 그것은 북한관계개선을 위해 우리가 남조선당국에 준 하나의 기회였다. 우리의 제안대로 남조선당국이 북침전쟁연습을 중단하는 길로 나아갔더라면 북한관계는 크게 달라졌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을것이다. 하지만 피뢰피들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선례적인 방어훈련》으로서 《남북관계와 무관하다》고 하니 뭐니 하고 떠들며 3월 초부터 미국과 함께 웅근 하나의 전쟁을 치를수 있는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하였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전과적은 이 전쟁연습이 북한관계와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북한관계개선의 근본원인이라는것을 다시 한번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특히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일환으로 감행된 《쌍용》연합상륙훈련은 《북의 핵시설장악》과 《평양점령》에 목적을 둔 극히 도발적인 공격연습으로서 이 전쟁, 침략적성격을 뚜렷이 드러내놓았다.

그뿐이 아니다. 피뢰피당은 저들이 벌여놓은 다변장로테스탈산사격훈련, 특수전훈련 등에 대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훈련이라는것을 숨기지 않았다. 그래서 피뢰피들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그 무슨 《방어훈련》인것을 스스로 공개하였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야말로 명백히 우리에게 대한 극도의 적대감과 침략기도의 발로로서 대화상대방에 대한 로골적인 핵전쟁위협이었다.

대화 평화에 역행하는 피뢰피당원들의 광란적인 군사적도박소동으로 하여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결과 긴장은 극도로 격화되었으며 조선반도에는 국제전쟁의 불길이 터질지 않을 수 없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었다. 피뢰피당원들이 우리의 성의와 야망을 무시하고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행위로 북한관계개선의 소중한 기회를 반쪽하게 깎아내린 이상 이제 북남사이에는 남은것이란 오직 힘에 의한 최후의 결판뿐이다.

남조선피뢰피당은 범죄적인 반공화국도박과 《제체통일》행위로 북한관계를 불신하고 대결의 최극단으로 끌고가는 장본인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면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민족적공통성에 기초하여 단합을 실현해야 한다. 이는 일방이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고 자기의 정의를 강요하려 한다면 그것은 대결과 충돌을 벗어날 수 없다. 현 북남관계의 파국적사태도 그것을 옹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피뢰피당은 골수에 배긴 《제체통일》야망을 실현하려는 불순한 기도로부터 반공화국도박소동에 야말하게 매달리면서 북남관계의 파국을 더욱 부추겼다. 피뢰피들은 지난 3월의 유엔인권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무대에서 이것도 않는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걸고들면서 《주민의 삶》이나, 《진정성 있는 조지》나 하고 우리를 심히 자극하였다. 그러나 피뢰피들은 《인권》공조를 극구 거부하면서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켰다. 최근에 《세누리당》과 피뢰피당은 도발적인 《북인권법》을 기어 올려 백기 위해 그것을 19대 《국회》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탕을 모의하는 등 대결야만적조작행위에 기승을 부리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피뢰

들은 《통일준비》의 간판밑에 《제체통일》을 위한 기구까지 조작하고 《연합의 통일》이니 뭐니 하고 공명연희 떠들며 저들의 색어빠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조선반도에 부식시키기 위한 흉악한 음모를 꾸미고있다. 반공화국대결과 모략에 환장한 피뢰피당의 이러한 당동은 그들이 말하는 《대화》와 《관계개선》을 외우면서도 실제로 있어서는 우리의 존엄높은 제도를 해치는 《제체통일》의 개꿈을 실현하려고 미쳐달리고있다는것을 날같이 폭로해주고있다.

남조선피뢰피당이 속에 칼을 품고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행동과 반공화국도박에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있는 형편에서 우리가 그들과 마주앉아 대화와 관계개선문제를 논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피뢰피당자들이 《대화》나, 《관계개선》이니 하는것은 사실상 저들이 지나가게 놓고있는 반공화국도박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교활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당국이 말하는 《민간교류》니 뭐니 하면서도 그것이 《5. 24 조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나》, 《5. 24 조지》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였는다고 하니 하고 공언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민족의 운명과 통일의 전도가 달려있는 북남관계문제를 저들의 범죄적인 대결야망을 가리우기 위한 교활한 술책으로 우회하는 피뢰피들의 당동은 온 겨레의 비난과 규탄만을 자아내고있다.

대화와 관계개선은 대결책동과 절대로 랑립될수 없다.

남조선피뢰피당은 아무리 노숙을 부리며 오그만수를 써도 북한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은 범죄적책임에 있어 절대 벗어날수 없으며 역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야말것이다. 이는 정철

특등인권범죄자들의 해괴한 광대놀음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인권》도박소동이 극도로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렀다. 얼마전 미국과 피뢰피당은 뉴욕에서 유엔《북인권도론회》나, 《탈북자초청토론회》에서 저것들을 벌여놓았다. 여기서 쏟아져나온 오욕말은 하나같이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심히 위곡하고 악의에 차서 혐멸을 취하달라고 일관된 잡소리들뿐이다. 한편 피뢰피도박배기들은 유엔《북인권사무소》의 서울설치와 관련하여 각서문합의를 끝내고 레담중 문을 열려고 분주함을 피우고있다.

미국장관을 등에 업고 반공화국《인권》도박에 미쳐들아가는 피뢰피들의 추태는 우리 천만국민의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피뢰피들이 국제무대에 벌여놓고있는 반공화국《인권》소동은 제 처지도 모르고 해피는 특등인권범죄자들의 해괴한 광대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51 번째 주》에서 상건의 노복으로 가련한 목숨을 부지해가고있는 남조선피뢰피들은 신성한 인권에 대하여 운운할 체면도 거둬고 없다.

《유신》파소속자들이 부활되고있는 속에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 생존권마저 강그리 유린말살된 인간생지옥, 인권폐허지대가 닥쳐나온 남조선이다. 진보적인 정당과 언론이 강제해산, 강제체감당하고 피뢰피대국인자들이 욕고를 치르고있는 5. 1절을 계기로 평화적시위에 나선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인 최루액세례를 퍼붓는 경악할 사태가 벌어지고있는것이 오늘 남조선에 펼쳐지고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들려오는것이란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의 피타는 곡성과 생존의 권리를 빼앗긴 수백만 실업자들과 비정규직근로대중의 원한에 찬 울분의 절규뿐이며 바는것은 도란에 빠진 민생지옥과 반인륜적악정에 걸닫고 항거해나선 각계층 인민들에게 서슬 퍼런 폭압의 칼을 댄다는 파초의 살풍경밖에 없다. 얼마전 유엔인권협약기구 피뢰피당에 통합진보당강제해산과 《세월》호참사유가족들과 각계 인민들의 평화적집회에 대한 야수적탄압, 피뢰피당의 집단폭행, 높은 자살률 등 28개의 항목에 걸쳐 보고서를 요구한 사실 그리고 어느 한 국제기구 피뢰피들 5. 1절집회반란행위에 경악하여 긴급문명을 낸 사실은 남조선의 처참한 인권실태를 그대로 폭로해주고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인권》도박소동이 극도로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렀다. 얼마전 미국과 피뢰피당은 뉴욕에서 유엔《북인권도론회》나, 《탈북자초청토론회》에서 저것들을 벌여놓았다. 여기서 쏟아져나온 오욕말은 하나같이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심히 위곡하고 악의에 차서 혐멸을 취하달라고 일관된 잡소리들뿐이다. 한편 피뢰피도박배기들은 유엔《북인권사무소》의 서울설치와 관련하여 각서문합의를 끝내고 레담중 문을 열려고 분주함을 피우고있다.

미국장관을 등에 업고 반공화국《인권》도박에 미쳐들아가는 피뢰피들의 추태는 우리 천만국민의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피뢰피들이 국제무대에 벌여놓고있는 반공화국《인권》소동은 제 처지도 모르고 해피는 특등인권범죄자들의 해괴한 광대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51 번째 주》에서 상건의 노복으로 가련한 목숨을 부지해가고있는 남조선피뢰피들은 신성한 인권에 대하여 운운할 체면도 거둬고 없다.

《유신》파소속자들이 부활되고있는 속에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 생존권마저 강그리 유린말살된 인간생지옥, 인권폐허지대가 닥쳐나온 남조선이다. 진보적인 정당과 언론이 강제해산, 강제체감당하고 피뢰피대국인자들이 욕고를 치르고있는 5. 1절을 계기로 평화적시위에 나선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인 최루액세례를 퍼붓는 경악할 사태가 벌어지고있는것이 오늘 남조선에 펼쳐지고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들려오는것이란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의 피타는 곡성과 생존의 권리를 빼앗긴 수백만 실업자들과 비정규직근로대중의 원한에 찬 울분의 절규뿐이며 바는것은 도란에 빠진 민생지옥과 반인륜적악정에 걸닫고 항거해나선 각계층 인민들에게 서슬 퍼런 폭압의 칼을 댄다는 파초의 살풍경밖에 없다. 얼마전 유엔인권협약기구 피뢰피당에 통합진보당강제해산과 《세월》호참사유가족들과 각계 인민들의 평화적집회에 대한 야수적탄압, 피뢰피당의 집단폭행, 높은 자살률 등 28개의 항목에 걸쳐 보고서를 요구한 사실 그리고 어느 한 국제기구 피뢰피들 5. 1절집회반란행위에 경악하여 긴급문명을 낸 사실은 남조선의 처참한 인권실태를 그대로 폭로해주고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인권》도박소동이 극도로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렀다. 얼마전 미국과 피뢰피당은 뉴욕에서 유엔《북인권도론회》나, 《탈북자초청토론회》에서 저것들을 벌여놓았다. 여기서 쏟아져나온 오욕말은 하나같이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심히 위곡하고 악의에 차서 혐멸을 취하달라고 일관된 잡소리들뿐이다. 한편 피뢰피도박배기들은 유엔《북인권사무소》의 서울설치와 관련하여 각서문합의를 끝내고 레담중 문을 열려고 분주함을 피우고있다.

미국장관을 등에 업고 반공화국《인권》도박에 미쳐들아가는 피뢰피들의 추태는 우리 천만국민의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피뢰피들이 국제무대에 벌여놓고있는 반공화국《인권》소동은 제 처지도 모르고 해피는 특등인권범죄자들의 해괴한 광대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51 번째 주》에서 상건의 노복으로 가련한 목숨을 부지해가고있는 남조선피뢰피들은 신성한 인권에 대하여 운운할 체면도 거둬고 없다.

《유신》파소속자들이 부활되고있는 속에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 생존권마저 강그리 유린말살된 인간생지옥, 인권폐허지대가 닥쳐나온 남조선이다. 진보적인 정당과 언론이 강제해산, 강제체감당하고 피뢰피대국인자들이 욕고를 치르고있는 5. 1절을 계기로 평화적시위에 나선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인 최루액세례를 퍼붓는 경악할 사태가 벌어지고있는것이 오늘 남조선에 펼쳐지고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들려오는것이란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의 피타는 곡성과 생존의 권리를 빼앗긴 수백만 실업자들과 비정규직근로대중의 원한에 찬 울분의 절규뿐이며 바는것은 도란에 빠진 민생지옥과 반인륜적악정에 걸닫고 항거해나선 각계층 인민들에게 서슬 퍼런 폭압의 칼을 댄다는 파초의 살풍경밖에 없다. 얼마전 유엔인권협약기구 피뢰피당에 통합진보당강제해산과 《세월》호참사유가족들과 각계 인민들의 평화적집회에 대한 야수적탄압, 피뢰피당의 집단폭행, 높은 자살률 등 28개의 항목에 걸쳐 보고서를 요구한 사실 그리고 어느 한 국제기구 피뢰피들 5. 1절집회반란행위에 경악하여 긴급문명을 낸 사실은 남조선의 처참한 인권실태를 그대로 폭로해주고있다.

피뢰피당의 파쇼적탄압만행이 끈질기게 심판을 면치 못한다

피뢰피에게 죽어도 고칠수 없는 악성고질병이 있다. 《북인권》이 어찌나저찌나 하며 우리의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를 혐멸하는 지랄행이다.

지금 반공화국대결에 미칠 대미진 피뢰피도박배기는 6월중으로 서울에 유엔《북인권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분주함을 피우는 한편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북인권법》을 기어오고 통과시키고 악을 쓰고있다. 며칠전에는 또다시 미국에서 상건과 함께 동족을 모욕하는 해괴한 《인권》도박행태극을 연출하였다. 하다면 말끝마다 《인권》나발을 불어대며 동족을 악의에 차서 괴드는자들에 제 집안은 과연 어떤 꼴로 만들어놓았는가.

아래의 사진들을 보라.

지난 5월 1일과 2일 서울에서 있는 《세월》호참사유가족들과 각계층 시민들의 투쟁에 대한 인민적대응의 야수적탄압만행과 그에 대한 인민들의 결사의 항거투쟁을 담은 사진들이다. 최루액이 쏟아지고있다. 마치도 흰여름 장마철에 억수로 쏟아져내리는 소나기를 받볼게 하며 사람들의 머리에 사정없이 들쭉거리지는 질실성최루액, 그것을 지금 야수들이 마구 들부어대고 있다. 독성최루액을 피해 잔들을 둘러싼 시위군중들이 이리저리 돌러우고있다. 화상과 주드, 호흡곤란, 장기손상은 물론 사망까지 초래하여 세계적으로도 그 사상이 엄격히 통제되는 독성화학물질이 평화적인 시위에 나선 무고한 인민들에게 들쭉거리고있다.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이

구한것은 오직 하나 아직도 9명의 자식들이 시체가 되어 남아있는 《세월》호를 인양하고 대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뿐이다. 여기에 과연 무슨 잘못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백정들은 유가족들을 짐승사냥하듯 포위하여 구적으로 몰아넣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있다. 그래서 집권자에게 애원도 해보지 않고도 해보았지만 피뢰피당은 야수같은 경찰화력경찰들을 내몰아 유가족들에게 공포행위를 안기고 독성최루액까지 무차별적으로 쏘아대고있다.

비명에 죽어난 자식들을 애 타게 찾는 부모들의 웨침에 파초당은 몸서리치는 인권유린행위로 대답했다. 그러나 어찌 참을수 있는가.

이제 날은 온갖 사나사나 사나 사생결단의 투쟁뿐이다. 유가족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아니라 피가 흐르고있다.

차디찬 바다속에서 애라게 구원을 바라며 모지망손이 되도록 배전을 하다가 죽어간 어린 넋들에 두벌죽음을 주는 인민백정들을 북수하지 못하면 여기서 죽겠다. 이것이 유가족들의 결사의 각오이다.

그렇다. 그들의 치솟는 분노

노와 결사의 각오는 투쟁의 기둥이 되어 휘날리고있다. 나뭇기는 기발을 보라. 《악근해 퇴진》, 바로 이 글발에 격노한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의 중요와 울분, 무참히 죽어간 어린 학생들의 피의 절규가 그대로 비껴갔다. 반역적악정과 독재통치로 민생을 도란에 빠뜨리고있는 파초정권을 기어이 박살낸 남침민심의 역센 의지가 투쟁의 기둥이 되어 발발하는 창공을 헤가르고있다. 인민들의 머리에 군림하여 인민교살의 피로 얼룩진 몸뚱이를 흔들며 들어대는 가증스러운 야만《정권》을 기어이 같이엎고야말 남조선인민들의 의지는 그 어떤 폭압으로도 꺾을수 없다.

《우리가 왜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끝까지 함께 싸워야 만(만정권) 뒤져자》, 시위투쟁현장에서 이리 저기 흐르고있다. 차디찬 바다속에서 애라게 구원을 바라며 모지망손이 되도록 배전을 하다가 죽어간 어린 넋들에 두벌죽음을 주는 인민백정들을 북수하지 못하면 여기서 죽겠다. 이것이 유가족들의 결사의 각오이다.

그렇다. 그들의 치솟는 분노

통치로 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권리마저 강그리 유린말살하며 남조선을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관무장으로, 민생폐허지대로 만든 특등인권범죄자 피뢰피도박배기의 정체를 날같이 고발하고있다.

인민백정들은 분노한 민심에 눈을 뜨게 하였다. 그리고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인권》을 때리기 전에 색어문드러지는 저들의 인민교살을 저지하려는 더러운 고름부터 청소해야 할것이다.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을 비롯한 각계층 시민들에게 가한 피뢰피당의 야수적탄압 행위를 치를 떨고있는 해괴한 의는 온 겨레가 이렇게 웨치고있다.

피뢰피당은 피뢰피는 입으로 인권에 대해 떠들지 말라! **본사기자 리 호 진**

특등대결과 사태극도로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렀다. 얼마전 미국과 피뢰피당은 뉴욕에서 유엔《북인권도론회》나, 《탈북자초청토론회》에서 저것들을 벌여놓았다. 여기서 쏟아져나온 오욕말은 하나같이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심히 위곡하고 악의에 차서 혐멸을 취하달라고 일관된 잡소리들뿐이다. 한편 피뢰피도박배기들은 유엔《북인권사무소》의 서울설치와 관련하여 각서문합의를 끝내고 레담중 문을 열려고 분주함을 피우고있다.

미국장관을 등에 업고 반공화국《인권》도박에 미쳐들아가는 피뢰피들의 추태는 우리 천만국민의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피뢰피들이 국제무대에 벌여놓고있는 반공화국《인권》소동은 제 처지도 모르고 해피는 특등인권범죄자들의 해괴한 광대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51 번째 주》에서 상건의 노복으로 가련한 목숨을 부지해가고있는 남조선피뢰피들은 신성한 인권에 대하여 운운할 체면도 거둬고 없다.

《유신》파소속자들이 부활되고있는 속에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 생존권마저 강그리 유린말살된 인간생지옥, 인권폐허지대가 닥쳐나온 남조선이다. 진보적인 정당과 언론이 강제해산, 강제체감당하고 피뢰피대국인자들이 욕고를 치르고있는 5. 1절을 계기로 평화적시위에 나선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인 최루액세례를 퍼붓는 경악할 사태가 벌어지고있는것이 오늘 남조선에 펼쳐지고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들려오는것이란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의 피타는 곡성과 생존의 권리를 빼앗긴 수백만 실업자들과 비정규직근로대중의 원한에 찬 울분의 절규뿐이며 바는것은 도란에 빠진 민생지옥과 반인륜적악정에 걸닫고 항거해나선 각계층 인민들에게 서슬 퍼런 폭압의 칼을 댄다는 파초의 살풍경밖에 없다. 얼마전 유엔인권협약기구 피뢰피당에 통합진보당강제해산과 《세월》호참사유가족들과 각계 인민들의 평화적집회에 대한 야수적탄압, 피뢰피당의 집단폭행, 높은 자살률 등 28개의 항목에 걸쳐 보고서를 요구한 사실 그리고 어느 한 국제기구 피뢰피들 5. 1절집회반란행위에 경악하여 긴급문명을 낸 사실은 남조선의 처참한 인권실태를 그대로 폭로해주고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인권》도박소동이 극도로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렀다. 얼마전 미국과 피뢰피당은 뉴욕에서 유엔《북인권도론회》나, 《탈북자초청토론회》에서 저것들을 벌여놓았다. 여기서 쏟아져나온 오욕말은 하나같이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심히 위곡하고 악의에 차서 혐멸을 취하달라고 일관된 잡소리들뿐이다. 한편 피뢰피도박배기들은 유엔《북인권사무소》의 서울설치와 관련하여 각서문합의를 끝내고 레담중 문을 열려고 분주함을 피우고있다.

미국장관을 등에 업고 반공화국《인권》도박에 미쳐들아가는 피뢰피들의 추태는 우리 천만국민의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피뢰피들이 국제무대에 벌여놓고있는 반공화국《인권》소동은 제 처지도 모르고 해피는 특등인권범죄자들의 해괴한 광대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51 번째 주》에서 상건의 노복으로 가련한 목숨을 부지해가고있는 남조선피뢰피들은 신성한 인권에 대하여 운운할 체면도 거둬고 없다.

《유신》파소속자들이 부활되고있는 속에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 생존권마저 강그리 유린말살된 인간생지옥, 인권폐허지대가 닥쳐나온 남조선이다. 진보적인 정당과 언론이 강제해산, 강제체감당하고 피뢰피대국인자들이 욕고를 치르고있는 5. 1절을 계기로 평화적시위에 나선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인 최루액세례를 퍼붓는 경악할 사태가 벌어지고있는것이 오늘 남조선에 펼쳐지고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들려오는것이란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의 피타는 곡성과 생존의 권리를 빼앗긴 수백만 실업자들과 비정규직근로대중의 원한에 찬 울분의 절규뿐이며 바는것은 도란에 빠진 민생지옥과 반인륜적악정에 걸닫고 항거해나선 각계층 인민들에게 서슬 퍼런 폭압의 칼을 댄다는 파초의 살풍경밖에 없다. 얼마전 유엔인권협약기구 피뢰피당에 통합진보당강제해산과 《세월》호참사유가족들과 각계 인민들의 평화적집회에 대한 야수적탄압, 피뢰피당의 집단폭행, 높은 자살률 등 28개의 항목에 걸쳐 보고서를 요구한 사실 그리고 어느 한 국제기구 피뢰피들 5. 1절집회반란행위에 경악하여 긴급문명을 낸 사실은 남조선의 처참한 인권실태를 그대로 폭로해주고있다.

단 평 치 마 두 른 야 수

얼마전 청와대홈페이지에 피뢰피당원들을 야수라고 비난한 글이 올라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세월》호국민대책회의 공동대표는 이 글에서 집권자에 대해 《혈연적인 괴물》, 《차디찬 얼음덩어리 야수》 등으로 탄원하면서 《나는 당선을 《대통령》이라고 인정하고싶지 않다》,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저주를 부렸다.

다른 어디에도 아니고 청와대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버젓이 올랐으니 집권자로서는 벨이 뒤집혔노릇이 아닐수 없었지만 사실 그것은 스스로 청한 분병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돌아오지 못한 자식들을 부르는 유가족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새싹같은 비웃음을 던지면서 쓰레기같은 《세월》호특별시행행안이라는것을 억지로 내리찍은 행태들이 누구인가. 경찰화력경찰들을

내몰아 《세월》호참사추모집회 참가자들을 개폐트 하고 유가족들과 시위자들을 100여명씩이나 잡아넣고도 모자라 오히려 집회주최자를 책임을 따지겠다고 필멸 펴고있는 천하의 야만은 또 누구인가.

바로 《얼음공주》로 악명높은 피뢰피당장자 야수인가.

비록 몸뚱아리에 치마는 걸쳤어도 사람잡이에 이끌리 나 들어치는 그 괴짜라는 피에 주린 삼행이 한자이다. 그런 파초당에게 피뢰피나 야수라는 악명은 꼭 안성맞춤이다.

피뢰피당에게 충고하건대 자기의 야수같은 처사에 분노한 민심이 언제 정벌의 홍두깨로 변할지 모르니 그럴바에는 차라리 권력의 자리에서 일제감치 물러나게 사색이 아니겠는가.

조 남 수

《포악한 독재통치 하루빨리 끝장내자》

《유신》독재자의 만행과 무엇이 다른가

남조선피뢰피당이 5. 1절을 계기로 벌여진 노동자들의 생존권사투투쟁과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항의시위를 파초정권을 내몰아 야수적으로 탄압한 소식은 우리모두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우리는 이번 5. 1절날 대제로 제 육종종목과 유희오락, 흥겨운 춤판을 펼치고 즐거움 유익의 한때를 보내면서 이 세상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이런 훌륭한 사회주의제도가 과연 어디에 또 있겠는가고 다스리던 깊이 생각하였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남조선에서 명절의 주인공들이 노동자들과 《세월》호참사유가족들과 파초정권이 미친듯이 쏘아대는 최루액에 맞아 피흘리며 거리에 쓰러져있는 모습들이 인민들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생존권 사투투쟁과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그렇듯 헤쳐놓는 악인들이 인민들을 탄압하고 소외하는 모습이 사냥터의 짐승처럼 보였을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적

살이나 민주주의와 인권의 정수라 할수 있는 용납 못할 반인륜적범죄이다. 야수와 같은 인민교살자들이 살판치는 남조선에 정자가 있을수 없으며 피에 주린 살인마《정권》은 지체없이 청산해야 할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교실장 양 소 회

남조선이 지구상에서 가장 포악한 파초독재가 살판치는 최악의 인민불복도, 압축사회라는것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피뢰피당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한 소식을 듣고보니 치가 떨리고 소름이 끼친다. 인민투쟁은 온 사투투쟁과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그렇듯 헤쳐놓는 악인들이 인민들을 탄압하고 소외하는 모습이 사냥터의 짐승처럼 보였을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적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인권》도박소동이 극도로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렀다. 얼마전 미국과 피뢰피당은 뉴욕에서 유엔《북인권도론회》나, 《탈북자초청토론회》에서 저것들을 벌여놓았다. 여기서 쏟아져나온 오욕말은 하나같이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심히 위곡하고 악의에 차서 혐멸을 취하달라고 일관된 잡소리들뿐이다. 한편 피뢰피도박배기들은 유엔《북인권사무소》의 서울설치와 관련하여 각서문합의를 끝내고 레담중 문을 열려고 분주함을 피우고있다.

미국장관을 등에 업고 반공화국《인권》도박에 미쳐들아가는 피뢰피들의 추태는 우리 천만국민의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피뢰피들이 국제무대에 벌여놓고있는 반공화국《인권》소동은 제 처지도 모르고 해피는 특등인권범죄자들의 해괴한 광대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51 번째 주》에서 상건의 노복으로 가련한 목숨을 부지해가고있는 남조선피뢰피들은 신성한 인권에 대하여 운운할 체면도 거둬고 없다.

《유신》파소속자들이 부활되고있는 속에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 생존권마저 강그리 유린말살된 인간생지옥, 인권폐허지대가 닥쳐나온 남조선이다. 진보적인 정당과 언론이 강제해산, 강제체감당하고 피뢰피대국인자들이 욕고를 치르고있는 5. 1절을 계기로 평화적시위에 나선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인 최루액세례를 퍼붓는 경악할 사태가 벌어지고있는것이 오늘 남조선에 펼쳐지고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들려오는것이란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의 피타는 곡성과 생존의 권리를 빼앗긴 수백만 실업자들과 비정규직근로대중의 원한에 찬 울분의 절규뿐이며 바는것은 도란에 빠진 민생지옥과 반인륜적악정에 걸닫고 항거해나선 각계층 인민들에게 서슬 퍼런 폭압의 칼을 댄다는 파초의 살풍경밖에 없다. 얼마전 유엔인권협약기구 피뢰피당에 통합진보당강제해산과 《세월》호참사유가족들과 각계 인민들의 평화적집회에 대한 야수적탄압, 피뢰피당의 집단폭행, 높은 자살률 등 28개의 항목에 걸쳐 보고서를 요구한 사실 그리고 어느 한 국제기구 피뢰피들 5. 1절집회반란행위에 경악하여 긴급문명을 낸 사실은 남조선의 처참한 인권실태를 그대로 폭로해주고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인권》도박소동이 극도로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렀다. 얼마전 미국과 피뢰피당은 뉴욕에서 유엔《북인권도론회》나, 《탈북자초청토론회》에서 저것들을 벌여놓았다. 여기서 쏟아져나온 오욕말은 하나같이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심히 위곡하고 악의에 차서 혐멸을 취하달라고 일관된 잡소리들뿐이다. 한편 피뢰피도박배기들은 유엔《북인권사무소》의 서울설치와 관련하여 각서문합의를 끝내고 레담중 문을 열려고 분주함을 피우고있다.

미국장관을 등에 업고 반공화국《인권》도박에 미쳐들아가는 피뢰피들의 추태는 우리 천만국민의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피뢰피들이 국제무대에 벌여놓고있는 반공화국《인권》소동은 제 처지도 모르고 해피는 특등인권범죄자들의 해괴한 광대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51 번째 주》에서 상건의 노복으로 가련한 목숨을 부지해가고있는 남조선피뢰피들은 신성한 인권에 대하여 운운할 체면도 거둬고 없다.

《유신》파소속자들이 부활되고있는 속에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 생존권마저 강그리 유린말살된 인간생지옥, 인권폐허지대가 닥쳐나온 남조선이다. 진보적인 정당과 언론이 강제해산, 강제체감당하고 피뢰피대국인자들이 욕고를 치르고있는 5. 1절을 계기로 평화적시위에 나선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인 최루액세례를 퍼붓는 경악할 사태가 벌어지고있는것이 오늘 남조선에 펼쳐지고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들려오는것이란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의 피타는 곡성과 생존의 권리를 빼앗긴 수백만 실업자들과 비정규직근로대중의 원한에 찬 울분의 절규뿐이며 바는것은 도란에 빠진 민생지옥과 반인륜적악정에 걸닫고 항거해나선 각계층 인민들에게 서슬 퍼런 폭압의 칼을 댄다는 파초의 살풍경밖에 없다. 얼마전 유엔인권협약기구 피뢰피당에 통합진보당강제해산과 《세월》호참사유가족들과 각계 인민들의 평화적집회에 대한 야수적탄압, 피뢰피당의 집단폭행, 높은 자살률 등 28개의 항목에 걸쳐 보고서를 요구한 사실 그리고 어느 한 국제기구 피뢰피들 5. 1절집회반란행위에 경악하여 긴급문명을 낸 사실은 남조선의 처참한 인권실태를 그대로 폭로해주고있다.